

3-1-2007

##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의 성시화 운동-포항성시화 운동을 중심으로

Eun Ho Kim 김은호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김은호,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의 성시화 운동-포항성시화 운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7.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THE HOLY CITY MOVEMENT AS A MOVEMENT OF THE KINGDOM OF GO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ITY OF POHANG, KOREA**

written by

**EUN HO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Jin Ki Hwang

---

Seyoon Kim

March 1, 2007

**THE HOLY CITY MOVEMENT AS A MOVEMENT OF  
THE KINGDOM OF GO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ITY OF POHANG, KOREA**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EUN HO KIM**

MARCH 2007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의 성시화 운동:  
포항 성시화 운동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황진기 교수

김 은 호

2007년 3월

## Abstract

The Holy City Movement as a Movement of the Kingdom of Go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ity of Pohang, Korea

Eun Ho Kim

Doctor of Ministry

2007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Our world is changing rapidly, and our church must also be changed, though not in conformity with the world, bu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church must be light in the darkness and salt for the world. Twenty-first-century meanings and perspectives call for a new paradigm for this generation, especially for the Korean church. Though the church has the gospel, it needs to present the real power of the gospel. This thesis aims to help the Korean church recover the power of the gospel that Jesus reflected in his ministry. The church has focused only on church growth and has lost the wholistic, Spirit-empowered gospel that can bring light and healing to the world.

The first part of this thesis will reflect on the ministry of Jesus in his society and research the meaning of the Kingdom of God that Jesus originally preached and taught. I will look at what exactly Jesus taught and what he did in his revelation of the power of God in real history. I will also research the ethics and practice of the movement of Jesus' followers in Jerusalem. I have called this kind of ministry a "Holy City Movement."

This study goes on to investigate examples of Holy City Movements brought about by the Holy Spirit in other cities and periods. These examples include the first Holy City Movement in Jerusalem, the Reformation church of Geneva, Switzerland, the movement of John Wesley, and the Holy City Movement of the Pyongyang. In each of these movements, I research the ways the Kingdom of God was put into effect in this world, and what are the weakness and strengths of

these movements.

Finally, I will investigate the Holy City Movement in Pohang. I ask the following questions: How did it start in the twenty-first century? What are its distinctive features? How can positive features of this movement be applied in other cities? Answers to these questions can empower Christian saints today to recreate this world.

This thesis seeks to help the Korean church reach outside the boundaries of church and be reborn in the world. The Holy City Movement builds the church based on the saints and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The role of the church is to bring the rule of the God to this world. God desires to work through Christians to change this world to become the Kingdom of God, and his will can be achieved in this world as it is in heaven through the Holy City Movement.

Theological Mentors: Jin Ki Hwang, Ph. D.

Seyoon Kim, Ph. D.

## 감사의 글

목회학 박사학위 공부들 시작하고 난 이후에 미국에 오게 되었다. 타국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늦게 신학을 공부하였지만 이제까지 나의 길을 잘 인정해 주고, 나의 목회 생활과 신학 공부들 돕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나의 아내 류옥경과 나의 사역지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기회들 자신의 삶의 폭을 넓히는데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윤기와 유진이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한다. 또한 부족한 아들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한없는 감사들 드린다. 나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아내의 형제, 자매들과 그 가족들 모두가 기도의 후원과 물질적, 정신적 후원을 아끼지 않고 행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들 드린다.

이 논문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끝까지 참아 주면서 지도해준 황진기 박사와 직접 논문을 읽고 좋은 지적을 해준 김세윤 박사께도 감사들 드린다. 또 처음 미국에 왔을 때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정해근 목사와 LA 성시화 운동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들 드린다.

이 논문은 사실상 나의 사역이 아니라 포항 지역 성시화 운동을 주도한 이견오 선린병원 원장과 포항제일교회 김광웅 목사 등의 일이다.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들 드린다.

성시화 운동은 이 시대들 위해 또 하나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다.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들 드리며, 앞으로 이 성시화 운동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동참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마지막으로 저를 알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수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들 드린다.

2007년 2월 김은호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5
제 2 장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성경적 고찰 .....	7
제 1 절 하나님 나라 .....	7
1.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	9
가.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 .....	9
나. 구약의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 .....	12
2. 신약의 하나님 나라 .....	15
가. 하나님 나라의 때 .....	15
나. 복음서에서의 하나님 나라 .....	17
다. 바울의 하나님 나라 .....	24
라. 소결론 .....	29
3. 하나님 나라의 윤리 .....	30
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 .....	30
나. 하나님 나라 윤리의 특성 .....	31
제 2 절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	37
1.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	37
2.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 .....	40
제 3 절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필요성 .....	45
제 3 장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의 성시화 운동 .....	48
제 1 절 성시화 운동의 의미 .....	48
제 2 절 성시화 운동의 역사 .....	53



1. 예루살렘 성시화 운동 .....	53
2. 칼빈의 제네바 운동 .....	56
3. 요한 웨슬리의 성결운동 .....	63
4. 평양성시화 운동 .....	68
5. 춘천성시화 운동 .....	74
제 4 장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항성시화 운동 .....	77
제 1 절 포항성시화 운동의 의미 .....	77
제 2 절 포항성시화 운동의 역사적 상황과 배경 .....	78
1. 역사적 상황 .....	78
2. 포항성시화 운동의 배경 .....	80
제 3 절 포항성시화 운동의 특징 .....	82
1.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확립운동 .....	82
2. 성경중심의 운동 .....	83
3. 성경말씀을 정책에 반영하는 운동 .....	85
4.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운동 .....	87
5. 설교내용의 독특성 .....	88
6. 성령의 역사 .....	90
7. 포항성시화 운동 조직 .....	91
제 4 절 포항성시화 운동 세계대회 설문조사들 통해서 본 포항성시화 운동 .....	93
1. 대회의 내용 .....	93
2. 설문조사들 통해서 드러난 집회에 대한 평가 .....	93
3.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소결론 .....	99
제 5 절 포항성시화 운동 개선점과 전망 .....	101
1. 세상과의 대화 .....	101
2. 성시화 운동과 타종교 .....	104
3. 성시화 운동과 정치 .....	109
4. 성시화 운동의 특권 계층화에 대한 우려 .....	112

5. 성시화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	113
6.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과 성경공부 교재 개발 .....	114
7. 성시화 운동의 조직 .....	117
제 5 장 결론 .....	119
제 1 절 요약 .....	119
제 2 절 제언 .....	122
부록 .....	126
참고 문헌 .....	129
Vita .....	135

## 표 목 차

<표 1> 대회 설교의 본문, 주제 및 내용 .....	90
<표 2> 포항성시화 운동의 조직표 .....	92
<표 3> 참석 동기 .....	95
<표 4> 대회의 진행 .....	95
<표 5> 설교의 내용 .....	96
<표 6> 결단의 시간 .....	96
<표 7> 대회의 필요성 .....	97
<표 8> 도시변화들 위한 대회의 필요성 .....	97
<표 9> 대회의 원동력 .....	98
<표 10> 전체적 평가 .....	98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의 제기

한국 교회의 성장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한국 교회는 매우 낮은 복음화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국 내 국민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적극적인 전도운동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인간에게 구원을 주고 더욱 향상된 삶을 약속하는 복음과 결합해서 한국 교회들 세계 교회 역사상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시켰다.

한국 교회 성장이 보여주는 가장 독특한 점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변화된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도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내 총인구중 불교는 22.8퍼센트였고, 기독교는 18.3퍼센트, 그리고 천주교는 10.9퍼센트의 비율을 보인다. 이것은 1999년도의 통계 즉 불교 26.3퍼센트, 기독교 18.6퍼센트, 그리고 천주교 7.0퍼센트와 비교해볼 때 기독교가 비율 면에서 0.3퍼센트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sup>1)</sup>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교회 성장에 더 이상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교회 성장은 왜 최근에 와서 이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교회 성장의 정체 현상은 몇 가지 원인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세속화들 들 수

1) "통계청 종교 활동 참여 인구, 시점 2003년." 웹사이트 참고: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WDA011&IDTYPE=3&FPUB=3](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WDA011&IDTYPE=3&FPUB=3)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본래적 가르침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이러한 위기들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단지 세속적인 흐름에 동참하면서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대응만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 내에 일고 있는 성장제일주의와 엘리트 중심주의, 그리고 물량주의를 들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성장의 문화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는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이끌어서 영성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구도내지는 또 다른 세속적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지상주의로 치닫게 되는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게 된다. 그래서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들과는 상관없거나, 혹은 지나친 상업성에 무비판적으로 영성을 가미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내게 된다.

둘째로 한국교회 성장의 문화와 관련한 교회 내부의 문제가 있다. 바로 지도력의 부재이다. 비록 교회에서 이상적이고 완전한 목회자를 찾는 것이 어렵지만, 일부 목회자들의 부도덕한 행위와 사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교회의 세습 문제 등은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 교회 정치가 지닌 모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오류들 인정하지 않고, 오직 교회의 권위만을 주장하면서 교회 내부로부터 동시에 사회로부터 매우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단체로 비추어지고 있다.

셋째로 기독교 신앙을 지닌 사회 지도자들의 문제이다. 기독교 신앙을 지닌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교회 성장 문화의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어 2006년도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가운데 37.1퍼센트가 기독교인으로 조사되었다.<sup>2)</sup> 이것은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통계이다. 즉 기독교인이 사회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삶과 영역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2) 별보신문 853호(2006년 5월 22일, 심정섭, "5.31 출마자 종교지표는?" )에 의하면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 인재 개발원의 조사를 통하여 광역단체 후보자 40명중 기독교 12명, 카톨릭 12명, 불교 8명이고, 기초단체장 후보는 불교가 57명, 카톨릭 55명, 기독교 109명이고 유력후보군에서는 기독교계가 35.1퍼센트, 불교가 12.2퍼센트고 전국 평균을 내면 기독교가 37.1퍼센트, 불교가 12.8퍼센트이다.

주지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 기독교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구현과 관련해서 상당한 책임을 지닌 지도자들의 소홀함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는다.

넷째로 교회 정치 구조의 문제이다. 오늘날 세상을 개혁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과거의 제도 안에 안주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데 무관심하고 있다.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장로교 제도들 채택하고 있는 많은 한국 교회들 가운데 시급한 현재의 문제보다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이 많다. 이 교회들은 본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 구조 속에서 교회 자체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지닌다. 아울러 정치 자체를 위한 정치들 함으로, 교회의 사회에 대한 선교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의 참된 비전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로 위의 네 번째와 관련해서 권위적인 교회 정치 문화이다.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인 장로 제도는 그 취지와는 어긋나게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세속화되어 버렸다. 교회 내에서 젊은 세대와 새로운 성도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안주하여 교회의 변화와 개혁은 소홀히 하고 이른바 “그들만의” 교회로 되어가고 있다.

여섯째로 교회의 성적, 도덕적 타락을 들 수 있다.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인 문제들과 금전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내부적인 윤리성이 교회 밖의 사회 윤리보다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평가들 받고 있다. 결국 교회의 진정성과 그와 관련한 복음의 능력이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곱째로는 신앙과 삶을 유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신앙과 삶을 서로 분리된 다른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단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짜구려 은총”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원론적 구조를 드러내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곱 가지 이유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교회 내부의 문제들과 관련한 것들이다. 물론 한국교회의 침체에 영향을 미친 외적인 문제들도 있다. 먼저는 최근 더욱 거세진 정통 기독교에 대한 도전을 들 수 있다. 다빈치 코드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반역사적이면서 반기독교적인 작품들의 성황들과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현대 문화의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이른바 자유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의하여 주창되는 여러 논거들의 정통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은 지금도 매우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외적인 이유보다는 내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큰 정체의 요인들이 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한국교회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기존의 신자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가져다주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위에서 열거한 일곱 가지 교회 내적인 문제들이 주된 이유이다.

사실상 외부적인 도전은 내부적인 문제만큼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반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매우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특히 노회와 같은 정치 구조들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교회 내부의 장로 정치 구조와 기타 여러 가지 기득권 세력들의 많은 문제점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타락한 행동 등은 단순히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적이며 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복음의 능력까지도 의심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회 성장에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인지들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교회 속에서 다시 한 번 임해야 하고, 그 운동을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들 다룬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예수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야 함을 이 연구들 통해서 드러내교자 한다.

또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성시화 운동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의 변화들 이끌어내야 한다. 이게 교회가 사회의 한 부분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들 선도하고 사회 전체들 감싸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내부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세상의 변화들 앞서서 이끌어내어야 한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설정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여 이들이 교회에서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힘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바로 “성시화 운동”이다.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협력해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포항에서 일어난 “포항 성시화 운동”은 위에서 드러난 교회의 내외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지역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한국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 가는 하나님 나라 선교와 관련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국내외의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를 각각의 도서들과 논문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신구약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규명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당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으며,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성시화 운동의 자료들을 가지고 성시화 운동을 소개하고 정리해 나갈 것이다. 성시화 운동이 무엇인지들 정의하고, 이 정의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시화 운동의 역사를 고찰할 것이다. 이 역사적 고찰은 예루살렘과 제네바,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운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에서는 평양 대각성 운동과 처음으로 성시화 운동으로 명명되어진 춘천 성시화 운동 그리고 성시화 운동의 가장 최근의 사례인 포항 성시화 운동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바람직한 성시화 운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되어온 포항 성시화 운동은 21세기 한국 선교와 세계 선교의 또 다른 선교적 모델로 간주될 수 있다. 포항 성시화 운동에 대해서는 그 진행



과정과 여러 결과들을 보여주는 실증자료들도 첨부하고, 나아가 성시화 운동을 위한 훈련 방법과 자료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 제 2 장

###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성경적 고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과 운동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운동의 처음과 시작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위대한 명령을 주셨다. 그것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하-20상)<sup>3)</sup>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으며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내용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다.

#### 제 1 절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요 개념인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된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에서만 사용된다. 신약에서도 서신서들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복음서에서 주로 등장한다.<sup>4)</sup>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해야 한다. ‘나라’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간의 관계에 비추어서 정의된다. 즉,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고,

3) 본 논문에서의 성경 사용은 표준새번역을 기본번역으로 하고 그 외의 성경 사용 시에는 표기하도록 함.

4)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복음서에서는 35회, 서신서들에서는 9회 등장한다(막 1:15, 마18:3, 눅 11:20, 17:21, 요 3:3, 롬 14:17, 고전 6:9 등).

이러한 다스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역이 있게 된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행하신 선교 사역 초기에 등장한다. 마가 복음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4-15)라는 예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러한 마가의 시작은 예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의가 드러나 있지 않다. 존 브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예수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말해준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유대인 세계에서는 잘 알려진 말이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으며 민족 전체가 갈망하여 온 소망의 세계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좀 생소한 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어디에 기원을 두었으며 예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셨으며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sup>6)</sup>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전해져 왔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이래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이해와 개념이 예수에게 와서 어떻게 변하였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5) Graeme Goldsworthy,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Gospel and Kingdom)*, 김영철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4), 57-58.

6) John Bright,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김철손 역, (서울: 컨콜디아, 1992), 18.

## 1.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 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는 곳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옛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골즈워디는 구약을 구원역사로 보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 구원이라는 진행과정보다는 그 목표인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는 보다 중심적인 주제”<sup>7)</sup>라고 말한다. 이것은 성경을 구원사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구원사를 포함하여 훨씬 더 폭넓게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나라를 정의하면 통치자, 백성, 그리고 그 다스림의 영역으로 정의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골즈워디는 구약 전체를 언약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첫 번째로 제시된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동산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에덴을 창조하셨고, 그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게 거역하여 그 땅에서 쫓겨난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제시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예시는 역사적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 과정은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나라-창 12:2; 13:6; 15:5; 약속된 땅-창12:7; 13:14-15; 15:18-21; 17:8, 하나님의 백성-창 17:2; 17:7-8; 18:19)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모세와 출애굽은 활성화되는 약속들(출 6:7; 7:5)로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출 6:6-8; 20:2). 이후 이어지는 사사시대는 왕조로의 진행 과정의 한 단계이다. 이 가운데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왕의 제도를 구별해야 한다. 이어서 나오는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건축만 남게 되었는데

7) Graeme Goldsworthy,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50.

데, 이 성전 건축에 앞서서 나단의 예언이 의미들 지니게 된다.<sup>8)</sup>

왕조 시대와 분단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는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비전이 들어있었다. 선지자적 비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타났다. 이스라엘이 역사적 위기들 맞을 때마다, 때로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힘을 동반하고, 나타나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the theophany tradition)을 경험했다. 특히 출애굽 때 나타나 세상 역사에 개입하시고, 원수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곧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기를 소망했다.<sup>9)</sup>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세상에 실제로 임재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임재들 통해 세상의 전복을 기대하고 그들 자신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비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망은 이사야서들 통해서도 주어지는데 이사야서는 왕의 탄생을 대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동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9:6)라고 말한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왕’으로 말미암는다. 또한 그 왕은 다윗의 위에 앉을 것이고 그 왕은 바로 메시아임이며, 이 메시아는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비쳐진다. 즉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윗 시대의 재현이요 다윗을 넘어서는 동치들 기대하게 된다.

존 브라이트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이 나기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였으며,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들 최고의 시대로 기억하고, 이 시대의 회복을 꿈꾸면서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한다. 즉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

8) Graeme Goldsworthy,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62-94.

9) 김세훈,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실존,” *바울과 예수* (서울: 두란노, 2001), 51.

게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위기에 빠져들면서 가지게 되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예언자들의 예언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간다. 이러한 예언자적 기대감이 실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패로 귀착되자 그 개념은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두 가지 왕국 즉 이 세상에서의 다윗의 나라와 올 세상에서의 미래적 종말론적 메시아의 기대들 모두 나타내게 된다.<sup>10)</sup>

이스라엘은 나단 언약에 의거해서 다윗 왕 이후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었다. 즉 한 사람의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지니고 있었다(삼하 7:4-17). 그 왕이 탄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을 다스린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후기 선지자들의 예언은 믿음의 행위와 법칙이 되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사회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들 구분하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 불의들 강하게 질책한다(암 1:6-8; 4:1-3; 5:10-13; 8:4-6).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와 신실한 순종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국지적이고, 즉각적인 것인 것이기도 하고(암 4:6-11; 호 9:1-6; 10:5-11; 사 10:10-11; 겔 16:51; 23:1-11; 렘 1:13-16; 20:4-6),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심판이기도 하다(렘 4:23-26; 사 2:12-22; 13:5-10; 흠 1:4-6; 합 3:3-12; 습 1:2-3; 18; 3:8; 겔 28:19-23). 또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심판에만 멈추지 않고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예시하면서 전 우주의 회복까지도 기대한다. 성경에는 이방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과 함께 구원을 예언한 많은 기록들이 있다(암 1-2; 사 13-23; 렘 46-51; 겔 25-32 등).<sup>11)</sup>

이러한 것을 종합하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나라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임할 것이고 그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만물은 새로운 창조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들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과 단절성이 같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새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10) John Bright. *하나님의 나라*, 15-49 참고.

11) Graeme Goldsworthy.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99-107.

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구약의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 통치의 원리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창 2:16-17). 그러나 인간이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나타난다(창 3:15).

하나님은 아브라함 및 족장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며 인간의 신실성과는 상관없이 은혜에 의해서 이루시는 것이다(창 12:2; 12:7, 13:6; 14-15; 15:18-21). 우선 모세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 즉 은혜를 받은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들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요구한다(레 19:2).

한편 사사기와 왕조시대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다윗의 시대는 “신정정치의 이상과 인간의 죄성이 혼합된 모습”<sup>12)</sup>으로 나타난다. 또한 솔로몬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 즉 땅과 백성과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모든 것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인간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계를 보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패턴은 분명히 거기 있으나 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sup>13)</sup>

아울러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실체들 보고자 했다. 이들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통해서 현재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다. 즉

12) Graeme Goldsworthy,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94.

13) Ibid., 97.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원리로 이곳에 임해야 하는지를 선포한다. 그 원리는 모세로부터 시작된다. “모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감독자들로서 항상 시내산 언약이라는 뼈대 안에서 활동한다.”<sup>14)</sup> 그래서 후기 선지자들은 믿음과 행위의 법칙이 되는 시내산 언약과 그것을 어긴 때 주어지는 심판과 회개와 신실한 순종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전 우주적인 구원을 선포한다. 이러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과 같다.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여호와와 그의 신이 임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또한 여호와와 그의 임하심은 여호와들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구약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제공되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율법은 세속적인 율법과 종교적인 율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제의적 율법과 신명기 율법의 공통적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레 19:1-2).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 율법과 세속적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통합되어 성전 제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의 사람들의 관계들 거룩하게 만들어내게 된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통치들 드러내는 것이다.

거룩은 하나님 자신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장소와 물건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출 15:11; 사 40:25). 이것이 더 확장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성은 선과 진리만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그의 거룩한 속성은 성실함과 진실함(사 25:1)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는 평강이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사 26:3).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샬롬”(shalom)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공의(justice)이다. 공의는 올바르게 행하는 것

14) Graeme Goldsworthy,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100.



인데 이것은 또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 이사야는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사30:18)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공의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사 32:1)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통치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또한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서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사 42:1)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말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인자 즉 사랑이다.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렘 31:3)라는 표현에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한다. 시108편과 시136편은 하나님의 인자를 강조하는 장이다. 이와 아울러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등장하는 말이 진리이다. 의와 진리라는 말이 쌍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같이 사용되어지기도 한다(시 25:10, 40:10, 잠 8:7). 이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의와 관련되는 단어가 약 272회 나오고, 인자라는 말은 245회나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공의와 인자(시 36:10, 101:1, 미 6:8)이고 이것을 받쳐주는 원리는 그의 진리이고, 또한 공의와 인자는 진리를 완성하는 목표들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서 진리에 기초한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거에 따라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낸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 즉 정의들 기초로 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의와 인자가 완성되고 진리가 기본 원리가 되어, 참된 평화 즉 하나님의 샬롬(shalom)이 주어지게 된다.

## 2. 신약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4-15).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앞에서 정의한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포함한다. 오랫동안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한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가. 하나님 나라의 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마가복음 1장에서는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런데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마 6:9-13; 눅 11:2-4)에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재의 상황은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으며 악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주기도는 이러한 악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원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유대인의 카디쉬(Kaddish) 기도문과 흡사하다. 이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예수 자신의 개인 창작물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고백되어진 기도라는 것을 말해준다.<sup>15)</sup>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왕권 행사가 아니라 묵시문학적인 전승 속에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임재를 의미한다(막 9:1; 눅 21:3 cf. 막 1:15; 마 10:7; 눅 10:9,11). 이러한 예수의 선포는 많은 논란을 가져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으로도 생각하기도 하고(눅 19:11), 어떤 사람은 그 시기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눅 17:20).<sup>16)</sup>

15) 김세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실존,” *바울과 예수*, 55.

이와 함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은 “예수의 이적 행위의 사역이라는 맥락 속에서 예수에 의해서 제기 되었다”<sup>17)</sup>(마 12:28; 눅 11:20). 또한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한 대답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누가복음 17장 20-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말씀하신다. 또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들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선포되어 진다(눅 11:20; 마 11:12-13; 눅 13:18-21). 이러한 견해는 다드(C. H. Dodd)에 의해 대표되는데, 예수의 공생애에서 드러나는 귀신 축출과 치유 사건, 그리고 죄 용서의 선포 등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들 통해서 현재 나타났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위의 두 가지들 변증법적으로 통합하여 그 현재성과 미래성 모두를(이미 그러나 아직)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들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였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 통합된다. 이제 더 이상 미래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도 현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시간의 의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현재와 임재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예레미아스와 쾰멜, 쿨만 등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D-Day와 V-Day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사탄은 이미 그 뿔뿔이 꺾였고(눅 10:18), 귀신들의 권세가 꺾이게 되었으나(마 12: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계속 될 것임을 말한다.

16) 이 의견은 주로 슈바이처와 불트만에 의해서 주장된 것이지만 두 사람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 슈바이처는 종말론을 시대적 제약을 가진 세계관으로 보고 제거하려 하고, 불트만은 종말론 안에서 어떤 하나님 이해와 세계 이해가 표명되었는가를 물음으로써 종말론을 해석하려 한다. 또한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도 슈바이처는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이해한 반면, 불트만은 예수가 자신을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이해했으며, 예수가 자신과 구별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물로서의 사람의 아들을 기대했다고 주장한다 Hans Conzelmann, *신약성서 신학 (Grundriss der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박두환 역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2001), 129-130 참고.

17) Leonhard Goppelt, *신약 신학1 (Newtestament Theology)*,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103

#### 나. 복음서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야훼께서 광야의 성막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 야훼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이며 야훼가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참된 야훼의 백성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되었다. 바벨론에 의한 성전 파괴는 이러한 성전 신앙을 온전히 붕괴시켰다. 바벨론 유수로 인해 성전 중심의 신앙은 다시 야훼 중심 신앙으로 변하게 되고 그것은 야훼의 시온으로의 복귀를 대망하게 된다. 이것을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의 동시대인들에게 야훼가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포로생활로부터 돌아오고, 야훼는 마침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세 번째 요소가 있어야 했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라는 형태를 띤 악이 패배당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주제들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메타 서사를 형성한다. 이 주제들은 모두 합쳐져서 다윗 왕가의 재정립과 성전의 재건에 대한 부수적인 소망들을 지탱한다.<sup>18)</sup>

이것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유대 민족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와의 연속성 및 비연속성으로 나타난다.

##### (1)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

예수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의 신학적, 역사적 이해와 함께 받아들여졌다. 원래 이집트로부터 광야로 인도해 내신 야훼의 능력이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주권을 회복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매우 현실적이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유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온 세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을 뜻한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18) N. T. Wright,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Jesus and Victory of God)*,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325.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계약의 하나님이 능력 중에 임하셔서 그가 항상 의도하셨던 방식대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오랜 갈망”<sup>19)</sup>이었다. 이러한 갈망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거룩한 혁명의 꿈”<sup>20)</sup>과 결부되어 있었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왕도 없다”<sup>21)</sup>는 믿음은 이방 세력의 지배하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혁명을 향한 큰 힘이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나라를 말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였다.

이러한 이해들 바탕으로 예수님 당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개념은 거룩한 혁명의 꿈과 결부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22)</sup> 사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수 있다는 개념은 매우 급진적이며, 혁명적이다. 특히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개념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세상 나라의 권세들을 찾았다.

그러나 예수는 정치적인 혁명을 해결책으로 하는 당시의 흐름을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기대했다. 제자들도 예수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현실적 왕으로 등극하려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막 10:35-38). 그러나 예수의 생각은 달랐다. 예수는 사실상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세 가지 시험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마 4:1-11). 여기서 그는 물질과 권력 그리고 명예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에의 절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시험을 통해서 그는 인간이나 세속적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말해준다. 또한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세력을 몰아냄으로써 자신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통치는 보이는 세상을 넘어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말한다(눅 11:20).

또 예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이 땅의 것과 동일시하지 않았다(마

19) N. T. Wright,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321.

20) N. T. Wright,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170-81 참고.

21) N.T. Wright,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322.

22) Ibid.

22:15-21). 그는 로마에 대항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협조하지도 않았다. 그는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전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눅 17:21)라고 선포했다. 여기서 ‘나라’는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인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말한다.

그리고 그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위에 임할 것이라는 뜻이다. 또 예수는 자신을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들 영접하였다고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된 것으로 주장한다(눅 9:48).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역시 강조하고 있다(눅 20:9-16). 아울러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고 말한다(마 26:28). 그리고 부활한 예수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마 28:18 하)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땅 만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부활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예수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다룬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몸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들 총괄하며, 땅과 하늘을 통합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들 회복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영역 즉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인간의 내면적 문제, 그리고 인간 상호 관계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수가 행한 모든 활동 즉 이적과 치유와 선포 그리고 그의 오심과 삶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 (2) 하나님 나라와 성전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야훼는 시온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인들의 성전 파괴는 야훼가 성전을 버렸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은 다윗 왕조들 재건하는 것과 함께 야훼의 시온으로의 복귀에 대한 열망이 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막 13:1 ; 눅 21:5).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면서, 희생 제사의 장소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왕권이 확립되는 근거가 되었다.<sup>23)</sup>

이러한 이해들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교리화 되고 율법화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보다는 성전 자체가 중요하게 되고, 야훼의 임재와 죄와 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해보다는 제사라고 하는 형식과 단지 정치적인 권력만 남아서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눅 11:46).

예수는 이러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면서 보이는 성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들 더욱 강조하였다(막 13:2).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들 맺고 기도하는 곳이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장소로서 중요하다. 또한 안식일에 대한 당시의 해석을 거부하고, 안식일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는 날임을 선포하고(눅 6:6-11; 13:10-17), 이들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자신임을 말하면서(마 12:1-8; 막 13:1-2; 눅 21:5-9) 인자가 임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즉 안식일의 문자적 준수보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와 그의 통치가 중요하고, 보이는 성전, 행해지는 제사보다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눅 11:42). 또 성전보다 더 큰 이로 예수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제 성전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선포한다(마 12:1-8).

그래서 예수에게서 성전은 바로 예수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로 변화된다(마 16:18-19). 예수는 그의 마지막 명령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족속들로 제자들 삼으라”(마 28:19)고 하였다. 이것은 예수의 사람들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제자의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게 된다.

또 예수는 그의 사역 가운데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견해(눅

23) N. T. Wright.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622-30.

10:25-37), 이방인들에 대한 칭찬(눅 17:18) 등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 이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야훼가 온 땅위에 왕이 되실 것”(슥 14:9)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민족주의는 거부되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빛이요, 이 땅의 소금으로서 온 세상을 치유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되어졌다.

결론적으로 예수가 의도한 진정한 성전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들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들 회복하고, 예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행해지고,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 (3) 죄와 악으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려면 악이 패배되어야 한다.<sup>24)</sup> 이것은 죄에 대한 해결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적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 사역의 첫 부분에 나타나는 세 번의 시험도 마귀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며(눅 4:1-13), 사역의 많은 부분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눅 4:31-36, 41, 8:26-39, 9:37-43 등). 바알세불 논쟁에서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눅 11:19)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귀신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는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눅 12:4)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여기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는 로마들 뜻한다.<sup>25)</sup>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들 자신들의 원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진정한 원수는 고소하는 자인 사단 즉 귀신들을 말한다. 이 귀신들 즉 악한 세력들이 진정한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 마태복음 12장 42-43절에 따르면 인간은 온갖 자신의 더러운 것을 제

24) N. T. Wright,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박문재 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452-62 참고.

25) Ibid., 689.



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더 악한 세력으로 인해 더 타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단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지속적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그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죄는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고(창 2:17, 3:22-24),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다(창 11:1-9).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에 대한 인간의 철저한 실패이자, 인간 고통의 시작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0장 34-39절은 이러한 세상에 대한 예수의 전쟁 선포이다. 이 구절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시인하라고 도전하는 문맥 속에서 예수들 따르는 길은 세상을 따르는 길과 다름을 강조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역시 예수들 중심으로 주어질 것임을 가르쳤다.

바로 예수가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유일한 인간이다(마 4:1-11). 그리고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죄가 없는 삶을 살았다(벧 2:22). 그리고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마 9:1-8, 눅 5:20, 8:48 등). 예수는 자신이 죄의 근원인 진정한 원수 마귀들 굴복 시킬 것을 예언하고(막 12:36), 자신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마 26:28). 또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말한다(마 9:9-13).

이와 함께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극복이다. 죽음의 극복은 바로 죄에 대한 해결을 의미한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과 죄를 해결함으로 마귀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들이 이 땅에서 시작하려는 출발점이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예수는 새 세상을 향한 시작점이었다(눅 24:46-9).

예수의 새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 번 예수의 선포에서와 같이 회개해야 한다(막 1:35).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눅 13:1-8). 회개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관념들 즉 세속적인 관점들과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개들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들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들 회복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회복하게 된

다.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마 6:12-13)라고 기도한다. 인간관계에서 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관대하여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이것은 관계의 중요성 역시 말하고 있다. 예수들 통한 죄와 악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들 통한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들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 (4) 예수와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고,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사람의 복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신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 받는다.<sup>26)</sup> 즉 여기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행한 행동들 속에서 나타난다. 하늘나라의 상은 이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마 5:11-12).

예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마태복음 5장에서 제사보다도 형제와의 화해들 더 중요하다고 한다. 행함에서 오른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겹옷도 주라고 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마 5:48)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마음과 행함의 일치들 요구하고 있다.

마태복음 6 장에서는 은밀한 자선의 중요성과 재물 사용 등에 대하여 말하면서, 마태복음 7장 결론부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

26) 마 5: 3-10 요약

다고 선언한다(마 7:21).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들 통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분명하게 구분하여(마 25:21, 26)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의 중요성을 말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자에게 행한 것”(마 25:45)을 말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나고, 그들의 행위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와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연결된다.

#### 다. 바울의 하나님 나라

##### (1)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바울은 서신 서에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개된다. 또 복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롬 1:17상)라고 하면서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롬 1:16)이다. 즉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하나로써 의를 만난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 졌는데 개별적으로는 ‘각 사물들이 올바르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면서 그 ‘존재와 특성 혹은 인격’을 말한다. 또한 이것이 야훼에게 사용되어서 그의 존재와 인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를 말할 수 있다.<sup>27)</sup> 야훼의 행동의 특성은 바로 이 인격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27) Willem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3*.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House, 1997). 744-69 참고.

말해진다. 이 약해의 특성은 약해의 거룩한 행위가 결부되고,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약해의 심판으로 연결된다.

우선 관계적 의미에서는 ‘정직’과 ‘신실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과 약해 사이에서 계약으로 정의되고 계약으로 표현되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와의 관계들 회복하여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의 계약을 지키고,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것으로 예수의 죄들 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관계들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예언서 속에서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가난한자의 필요들 채워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sup>28)</sup>

로마서 14장 17절의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우선성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성을 보여준다. 즉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관계들 가지는 것이 의들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라는 것은 계약적이거나 어떤 형식을 통한 의도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 관계적 의들 말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성령 안에서의 올바름과 함께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정직함” 내지는 “신실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것은 곧 사회 속에서의 “샬롬”으로 드러나게 된다. 바울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28)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선포한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평화의 실현은 바로 인간의 즐거움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즐거움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로운 하나님 나라는 단지 앞으로 다가올 나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이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복음서에서의 하나님 나라 통치의 ‘이미-아직’의 특성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28) Willem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3*, 744-69.

## (2) 바울에게서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편지들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쓴다고 말한다(롬 1:7). 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고전 3:16-17).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을 “성령의 성전”(고전 6:19)이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바울의 이해는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고후 6:16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바울의 성전에 대한 견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말하고 있다. 즉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 중요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들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들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롬 12:1-2).

여기서 온전한 예배는 단순한 성전 제사나 예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며, 생활 전부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가 단순히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과도 통한다(미 6:6-8). 여기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선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리스도인의 몸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점도 흠도 없어야 한다. 이들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 통하여 새롭게 변화 된 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의미한다.

### (3) 죄와 악으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 나라

바울에게서 죄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그는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다룬다. 여기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롬 3:23). 그러나 그에게서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롬 3:24).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롬 3:26). 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롬 5:1).

하나님께서 우리들 의롭다고 여겨 주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범죄 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우리들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은혜로 의롭다고 하신다(롬 4:24-5:1).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에게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 이 예수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온전히 죽음을 극복하여 죄를 해결함으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인간에게 허락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롬 6:1-4). 그리고 다시는 죄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롬 6:11). 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우리가 전해 받은 교훈들을 마음으로 지켜서 순종하게 되어(롬 6:15-17)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으며,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sup>29)</sup>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롬 6:23)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롬 8:1-2)라고 하여 예수를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성령을 통한 온전한 자유를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넘기는 시작점이다(고전 15:23-24).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죄로

29) 롬 6:15-22 참고.

인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로 나아간다. 이 부활은 죽음과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 부활한 몸은 혈과 육에 속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전 15:50). 이 새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예수가 생명을 주는 부활한 몸을 입은 채로 거하게 된다. 부활은 현재 이 땅에 있으며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된다. 이들은 이제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고전 15:48). “이들은 땅으로부터 도망쳐서 마침내 하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하여금 현재의 땅에 속한 현실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다.”<sup>30)</sup>

이러한 바울의 궤와 그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해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들 분명하게 인식한다.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들 통해서 주어진 의로 인간은 궤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들 통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하늘이라는 장소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그 가운데서 구체적인 의의 나라로 임하게 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

#### (4) 바울과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며 단순히 말로 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지금 여기서 드러난다. 그 능력은 바로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기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의 동시성을 보여준다. 불의한 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의한 자의 자리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 세대에서 불의들 행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여준다. 갈라디아

30) N. T. Wright,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The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562.

서 5장 21절에서도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격적 변화들 수반한다(갈 5:22-23). 성령의 역사는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고전 12:1-31). 그리고 그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드러나며 우리의 마음과 행함을 통합한 것이다(고전 13장).

또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고전 10:31)에서 실제 생활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의 중요성을 말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고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하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라가 된다. 즉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하는 것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기준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의 연결성을 보여준다.

#### 라. 소결론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현존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간다. 복음서와 바울서신에서 하나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의가 주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나 제의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의 현장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현장이 된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 3. 하나님 나라의 윤리

#### 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

예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이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로부터 현재로 몰입해 들어오는 역사변혁적인 역동적 현실”<sup>31)</sup>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입박한 하나님 나라, 지금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과감한 결단을 감행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또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 즉 몰입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비록 현재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들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실망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미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서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곳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온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하십시오”(빌 1:27상)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됨으로써 은혜의 구원의 은총을 더 누리게 되고, 그 윤리들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31) 윤철호, *예수 그리스도 (상)*,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1), 149.

## 나. 하나님 나라 윤리의 특징

### (1) 사랑의 윤리

예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로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하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 하여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있다”<sup>32)</sup>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강조하였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게 대한 것을 같이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랑은 또 한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단순한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것만도 아니다. 예수는 “네 원수들 사랑하라”(마 5:44)고 말하면서 구약에서 나오는 말을 넘어서었다. 이것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곧 저주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런 사랑을 요구한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한다. “너희가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 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들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나? 이방 사람도 그 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마 5:46-48).

예수의 윤리는 일반적인 대상을 넘어서 나들 가장 미워하고, 또 나와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기를 요구하는 사랑의 윤리다. 이것은 이웃 사랑을 넘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예수는 또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 그는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하여 이들도 하나님의 잔치 상에 최소한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마 15:21-28).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과정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눅 7:9하)라는 말로 그

32) 마 22:34-40.

들 칭찬하면서 이방인들을 인정해 주었다.

또한 이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이웃에 대한 예를 들면서 강도만난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눅 10:25-37)를 말하였다. 이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실천적 사랑의 우선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랑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고, 고난과 아픔을 당한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또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인종을 초월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사랑의 윤리들 실천하는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한다.

## (2) 내적 동기의 중요성

예수는 위선을 매우 미워하였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대하여 일곱 번씩이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저주하였다.<sup>33)</sup> 이들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선을 행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율법이 가득하다”<sup>34)</sup>고 질책하였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신을 찾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기뻐하신다(사 1:18-20, 욥 2:12-13).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의 마음의 상태가 보다 더 순전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나무의 열매로도 비유하였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눅 6:43-45).

이 구절은 내면적인 것이 그 행함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마

33) 마 23:1-36.

34) 마 23:28.

음에 가득한 것을 행동으로 표출할 때에야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외적 행동보다는 오히려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 한편 뱀을 맞고 난 후에 다른 편 뱀을 돌려 대었을지라도 그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단순한 망각이나 참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내부로부터 예수의 가르침에 철저히 동의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시 된다(눅 7:49). 자신의 의를 취하려 하거나,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신들의 유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였고, 자신들은 집을 지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의 등에 큰 집을 지우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였다(눅 17:37-46).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동의와 순종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행함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함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 (3) 행동하는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단지 마음의 윤리, 자기만족적 윤리가 아니라 행동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나아야 하며(마 5:20), 말씀을 실행하여 반석위에 집을 지어야 하며(마 7:24-27),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해야 한다. 또한 종말의 때에 심판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행위로 결정될 것이다(마 25:31-46).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마 7:21). 여기서 예수는 행위와 믿음의 일치를 말한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약 2:14-17) 라는 말씀으로 요

약하고 있다.<sup>35)</sup>

이러한 행함은 먼저 섬김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나라다. 예수는 세리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마 11:19; 눅 7:34). 예수는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하늘의 떡을 베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배고픈 자들을 광야에서 몰아내지 않았다. 이러한 예수의 사랑의 윤리는 섬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서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눅 22:26)라고 하면서 자신을 “나는 시종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눅 22:27하)라고 하였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어린 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마 18:4).

야고보와 요한의 높은 자리 요구에 대하여 “너희 사이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 20:26하-27)고 하면서 자신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위해서 왔다고 한다(마 20:28).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행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섬기는 일의 모범을 보여주었다(요 13:3-17).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나아갔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전능자로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말과 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통한 행함 속에 존재하게 된다.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과 물질과 행동으로 섬김의 윤리를 실천하는 나라이다.

#### (4) 자유케 하는 윤리

예수는 인간을 얽어내는 제도나 관습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에게서 자유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율법주의나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가 가르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 자유의 율

35) 윤철호, *예수 그리스도(상)*, 149-153 요약.

법이다. 이들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 종교적 계율보다 더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막 2:23-27; 마12:1-3). 그리고 그는 안식일에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배고픈 자가 요리하고, 먹는 것을 허용하셨다(마 12:1-8). 또한 그 당시 매우 중요하였던 성전 예배에서의 자유도 선포하셨다. 예배의 장소보다도 오히려 “영과 진리로 예배”(요 4:23)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 역시 형식과 장소를 넘어서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인도하고, 이제까지 율법을 따랐지만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창조의 주인인 자유롭게 하는 예수들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 (5) 창조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윤리

예수는 단순한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창조의 질서로 사람들을 이끌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신약학자 고펠트도 예수의 윤리는 구약을 넘어 창조의 질서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가 답을 하였으므로 예수의 윤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 속에서 지금 현재의 문제들 해결한다고 말한다.<sup>36)</sup> 이것은 특히 결혼을 설명하면서 나오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마 19:6)으로 정의하면서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고 하면서 창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가 비록 ‘음행한 연교’로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즉 예수는 깨뜨려지지 않는 결혼을 요구했고,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사람이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윤리는 창조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윤리이다.

#### (6) 소결론

결론적으로 예수의 윤리는 통합적 윤리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의 윤리는 내면적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단지 마음의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

36) 고펠트, *신약신학1*, 162.

어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실천적 윤리이다. 또한 예수의 윤리는 창조 질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윤리이다. 이러한 예수의 윤리는 한편으로는 절대적이고 종말론적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완성되는 윤리인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실천해야 할 실천적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교리나 제의나 의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몰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들 활발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다.<sup>37)</sup> 이들 통해서 이미 예수들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완성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제 2 절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 1.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예수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하였다. 예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대였다. 기독교의 활동은 도덕 운동이나 인간화 운동이나 인권 운동이 아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운동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로의 초대이다. 구원에의 초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도들 총괄하는 총체적 복음운동이다.

첫째, 이 복음운동은 치유와 축사를 포한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린 것은 단순한 이론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의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의 기적의 첫 번째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일이다(막 1:21-28).이 일로 인해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37)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갈 5:22-23).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또한 각종 병든 사람들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 한다(마 8:14-17; 막 1:29-34; 눅 4:38-41). 예수 사역 초기에 나타난 기록들은 예수의 치유와 축귀 사역에 큰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그의 복음이 말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행함과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치유와 축사는 또한 단순한 육신적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를 의미한다. 복음이 증거 되는 곳에는 영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육적인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질병과 악한 세력에 의하여 억눌려 있던 자들이 예수들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치유의 사역이 안식일에 일어난 경우가 많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인간에게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부정적 해석으로 안식일은 안식 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안식일을 자유와 해방의 날로서 인간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날로 재 선포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권세에 대하여 놀라게 하고,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층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현상을 가져 왔다. 자유와 해방은 예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운동은 치유와 축사의 운동이었고, 이들 통하여 사람들에게 육신만이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억눌림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운동이었다.

둘째, 복음운동은 또한 회개와 죄 용서의 운동이었다. 회개하라는 예수의 요청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죄로부터 해결함을 받으라는 명령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들 정상화하라는 명령이다. 이러한 회개란 행동의 변화들 수반하는 것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윤리적 변화들 명령하고 있다.

죄 용서에 있어서 예수는 인간의 죄를 용서 할 수 있는 역사상 나타난 유일한 분이다. 예수는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데도 관심이 많았지만, 그 치유의 역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들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는 병을 치유하는 선언 보다는 오히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막 2:5하) 내지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요 8:11하)와 같은 선언을 하셨



다. 또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 합니다”(눅 23:34)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있다. 이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며,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들 보여준다.

죄 용서가 없는 인간은 항상 그 죄책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속성이 거룩한 분이시므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죄 용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진정한 평화들을 누리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을 정죄하는 것으로만 인간의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죄책감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 이와 같이 복음운동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들 회복하게 하는 운동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들 회복함을 통해 주어진 죄의 해결은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게 한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들 회복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므로 우리는 일흔 번의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마 18:21-22). 예수의 운동은 정죄하는 운동이 아니라 용서하는 운동이다.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는 받아들여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건 없는 용서이고, 모든 사람을 향한 용서이며 형제들 향한 용서이고, 가장 큰 원수들 향한 용서이다. 용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용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용서들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들을 맛볼 수 있다.

셋째,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은 섬기는 운동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가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였다. 예수들 따라다니는 목적도 상당 부분이 예수들 통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성향들이 강했다. 그러나 예수는 섬김을 받고 권력을 가지기 보다는 오히려 저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였고(막 10:45), 그의 사역 전체들 통해서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하면

서 잠 잘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였다.

예수 운동은 궁극적으로 역전의 운동이다. 높은 자는 낮아 질 것이다. 높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마 18:1-4).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제자들의 부모들조차도 예수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의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청탁을 한다. 이들에 대하여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 20:26-27)라고 가르쳤다. 또한 유월절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도 예수는 직접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러면서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 13:14-15)라고 교훈하셨다. 예수 운동은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운동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운동이다. 예수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전부들 십자가에 내어 놓았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 복음운동은 성전 청결 운동이다. 성전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행해지고,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물질적 장사꾼의 집으로 변한다던지, 바리새인들의 기득권과 종교인들의 생계들 위하여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이러한 곳은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다. 그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전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초기지이다.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종말론적 체험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또한 속죄와 화목의 제사가 여기서 드러진다. 이러한 성전의 진정한 의미들 되살리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다.

예수에게 있어서, 성전의 본질적 의미들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들 회복하는 것으로서의 성전 청결 운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

그는 만일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허물면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였다. 이것을 요한은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 이었다”(요 3:21)고 기록한다. 이것은 예수 중심의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성전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들 의미한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였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가운데 임재 하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으며, 이 새 백성이 성전이 되었다(고전 3:16-17; 고후 6:16). 즉 예수들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한사람 한사람이 성전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새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다(고전 12:27-28).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곳이 교회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이 직장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곳 자체가 바로 예배의 처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성시화 운동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자는 운동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성령의 전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들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들 맞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운동이 바로 성시화 운동이다.

## 2.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

먼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은 바로 현재성이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마 12:28; 눅 17:21). 이 ‘가운데’란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즉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현재는 바로 ‘하나님의 현재’이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현재로 몰입해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다. 예수 운동은 예수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다. 예수는 당시에 직접 이 땅에 현재하고 있는 분이였다. 그는 미래에 오실 분으로서도 존재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분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 행해져야 한다. 예수는 자신이 이 땅을 떠나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들을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8-20)고 하였다. 여기서 예수는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였다. 예수는 우리들 떠나 간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는 분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운동으로서의 성시화 운동은 영원한 현재형의 운동으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운동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대상은 바로 현존하는 세상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었다. 바로 이 역사 속으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다(요 3:16).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역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요 3:17).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가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이 땅을 사랑할 뿐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준다.

예수의 사역의 대상도 바로 이 세상이었다. 그것은 저 천국이나 영적인 세상이 아니었다. 예수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었다. 또한 철학이나, 영의 세계나 이론을 말하지 않았다. 그분은 이데올로기들을 주창하지 않았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병든 자들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눈 먼 자들 보게 하고 나환자를 낫게 하였다. 굶주리는 사람들을 그냥 물려보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막 6:30-44).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놓았다.

그는 특정한 지역인 유다의 나사렛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였다. 이것은 역사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는 특정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온 세상을 위하여 일하였다. 그는 유대들 떠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승천하면서는 그의 제자들에게는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 하였다. 그에게는 모든 족속이 사역의 대상이었다(마 28:19). 또 그가 가졌던 권세는 하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도 포함하였다.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은 통일되었다.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이원론이 발붙일 곳이 없다. 예수는 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가 가르쳐준 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마 6:10하) 라고 기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천사는 그가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독특성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과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분리되지 않는다. 즉 플라톤의 이원론이 발붙일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성시화 운동은 세상 중심적이며 현장 중심적인 운동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속한 곳을 중심으로 행해 질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은 점진성이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이다. 이 비유들에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로 비유된다. 이것은 매우 작은 것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하늘나라는 누룩으로 비유된다. 이것은 보이지 않게 가루 서 말을 부풀게 한다. 예수는 그의 사역 자체를 통해서 아주 적은 것으로 시작하는 자신을 보여주었다. 아니 예수의 세상에 임하는 모습 자체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파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위대한 통치자나 정치가들과 함께 시작한 운동이 아니었다. 그의 제자들은 모두 다 뛰어난 자들도 아니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 함께 전 인생을 보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일부만을 다녔던 예수의 사역은 그 자체로 세계화나 위대한 인물의 영향력과는 무관하다. 위대한 철학을 설파한 선생도 아니요, 오히려 그는 당대의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정치가로부터 멸시 받았던 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권력가나 종교인들이 아니요 오히려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이었다(마 11:19; 막 2:16).

예수의 사역은 바로 이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다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수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거부하는 자들이 더 많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는 정치적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것들의 위험성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진정으로 따라올 자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였다(요 6:26). 이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추구하는 일이다.

예수의 사역은 세속적으로 위대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지도 않았고, 세포리스를 그의 사역의 중심지로 잡지 않았다. 그의 사역은 가버나움과 갈릴리들 중심으로 행해졌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실하였다. 그는 중동지역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오직 이스라엘의 버림 받은 자들의 스승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다. 그는 유대인으로 살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명으로서 십자가를 기꺼이 졌다.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러나 그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의 출발점이었다. 성시화 운동은 세계의 변화들 꿈꾸지만 그 지역의 일에 충실한 운동이다. 한 지역을 바꾸고, 그 지역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예수 운동의 출발점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모든 사회적 신분과 장벽을 넘어선다. 모든 사람들을 그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 그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먼저 열두 제자였다. 이들의 출신 지역과 가문, 그리고 직업은 매우 다양하다. 어부가 있는가하면 세리가 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하면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다. 또한 그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성들도 많았고 당대의 사람들이 배척하였던 나환자 출신도 있다. 최후의 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있었다. 그 뿐 아니라 랍비 출신의 니고데모도 그의 곁에 있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리새인 모두는 예수 운동의 사역의 대상이었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던 들이지 않던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예수의 가르침에서 배척받았던 사람들은 없다. 다만 그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결국 예수 운동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다. 이것은 차별 없는 예수의 사역 영역을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운동에 열심히 참가하였고, 역시 지식층들과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들 따랐다. 물론 그들 배척했던 사람들은 양쪽에 다 있다. 성시화 운동은 바로 이러한 대상의 총체성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운동이다. 또 예수의 뜻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운동이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

을 투자하는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전부들 요구한다(눅 18:22).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투자한다.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이고 비밀이다(마 13:44-46).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땅에서 부자는 자신의 것으로 즐거워한다. 누가복음의 부자는 이 땅의 것을 즐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이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는 고통을 당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영원한 투자처에 투자들 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사기 보다는 세속적 안락과 평안함에 더 관심이 많았다(눅 16:25).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막 10:17-23). 그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풍요만을 다 누린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의 부유함 속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가족과 집과 모든 재산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요구된다(막 10:243-31). 이것은 바로 나의 소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다.

결국 성시화 운동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소유의 주인인가? 누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이신가? 라는 주권의식에 대한 것이다. 진정한 소유주에게 우리의 소유권을 제대로 물려주는 운동, 참된 “주”(Lord)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시화 운동을 시작하는 자체가 자기 헌신의 표현이다. 이 운동을 시작한 자들은 자신의 사재들 털어서 이 운동을 시작하였다. 매우 힘든 경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시간을 내어 성경 공부와 지역의 변화들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질을 내어 놓았다. 성시화 운동은 대접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접하는 운동이며, 나누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절대 헌신이 요구되는 운동이다.

### 제 3 절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필요성

현대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급속하게 일어난 한국 교회 성장의 문제점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외형적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기복 신앙과 지나치게 도시 중심적인 성장으로 인한 교회의 중산층화와 대형화이다. 그래서 도시 빈민 지역과 공단 지역이 선교의 사각 지대가 되버린 것이다.

또 한국 교회 성장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소망교회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 등 보수 대형교회들이 주도하여 나타나는 탈사회적 교회들 조장하는 역기능이다. 보수주의 교회는 전반적으로 개인 구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사회 참여에 소극적이어서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무관심 내지 방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반사회적이며 반민주적인 세력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과 지나친 개 교회와 개 교단 주의 등은 교회의 폐쇄성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지나친 교회의 대형화는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서 인격적인 관계들 가지지 못하게 하고 교육, 봉사, 친교 같은 교회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sup>38)</sup> 또한 대학 사회에서도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가 대학생 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나 UBF, Navigator 등의 보수적인 단체들이 주도함으로써 사회의 문제와 상관없는 복음 전도 운동이 진행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결과들 가져온 부분들이 있다.

현대의 교회의 문제점은 과거 시대와 다르다. 그것은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니고, 성직자들의 사례가 적다든지, 그들이 무식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오히려 지나친 권력과 물질, 그리고 너무 많은 교인들에 있다. 그리고 교회 내의 정치 문제에 골몰하여 사회의 문제에는 무관심한 것이다. 교회 성장에는 관심이 많지만 교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38) 이원규,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6), 238-241.



사용하는 것에는 인색하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 당시의 유대교와도 매우 흡사한 실정이다. 자신들만을 구원 받은 자로 그리고 자신들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로 간주하고 교회 내의 삶에만 몰입한 유대인들과 같다.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율법을 지키는 법으로 사람들을 얽매고, 성전을 치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스스로 의인인 체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하려면 과거 교회가 소홀하였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투명성과 정의의 확보, 사회의 복지 실현 등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안정과 휴식의 확대, 긴장과 갈등의 해소, 소외감과 박탈감의 문제 해결을 신앙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을 교회적, 교단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의 회복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농촌 문제, 도시 빈민지역문제, 공단 지역의 문제, 이주 노동자와 북한으로부터의 자유 이주민, 북한 인권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교회의 사회 참여와 봉사는 진실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태도가 요구된다.<sup>39)</sup> 즉,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들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들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 예수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다. 지금 사회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가 아닌 교회의 문제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예배와 기도 중에서의 회개가 아니다. 교회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교회의 모든 부분에 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의 재정 사용과 조직, 선교, 구제 등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원칙을 적용해

39) 이원규,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243-44.

야 한다. 또한 목회자들도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탄생하여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의 뒤를 따라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대 도시 중심적인 교회 설립이나 교회 성장의 마술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 할 뿐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으로 누룩과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꿈꾸어야 할 때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기구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것과 임하실 것을 증거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까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몸이 자라면서, 정신도 성숙해지고 영도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사람보기에 사랑스러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가 진정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들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기에 성시화 운동은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들 회복하고, 결론적으로 사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자는 운동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이 시대적 필요로 인해 등장하게 된 것이다.

## 제 3 장

###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의 성시화 운동

#### 제 1 절 성시화 운동의 의미

“춘천 성시화 운동”은 한국에서 정식으로 “성시화 운동”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여 진행된 운동이다. 여기서 “성시화 운동”이란 말은 “한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자고 하는 복음 운동”이라고 정의된다.

첫째, 여기서 나오는 “시(市)”라는 말은 도시(都市)를 말한다. ‘도시’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도시는 촌락과 함께 인간의 두 가지 거주 형태이다. 또 도시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그래서 인구수와 인구 밀도, 산업별 인구 구성 등에서 촌락과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인구 2만 이상은 읍(邑)으로 5만 이상으로서 도시 형태를 갖춘 곳을 시(市)라고 한다. 거대도시에는 광역시, 특별시 등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조직을 실시하고 있다.<sup>40)</sup>

20세기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도시는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그 성장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3세계에서 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 근무하고 있는 UN 산하 인류문제 해결 담당 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50년에 30퍼센트를 조금 밑돌았던 것으로 집계됐던 전 세계 인구의 도시 점유율이 꾸준히 성장하여 1970년에는 36.9퍼센트, 1985년에는 41.6퍼센트를 기록하였다. 이제 이 도시 인구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50퍼센트를 넘을 것이며 2025년도에는 60퍼센트에 도달할 것이다. .... 1950년에는 세계 5대 인구 과밀 도시 중 4개 도시가 선진국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40) Naver 백과사전. online at <http://100.naver.com/100.php?id=48105>

10대 인구과밀도시 중 단지 2개 도시, 즉 요코하마의 도쿄와 뉴저지 동북부의 뉴욕 시만을 선진국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최대 인구 과밀 도시는 2630만 명이 살고 있는 멕시코시티이며, 상파울로 2400만 명, 캘커타 1660만 명, 그레이더 뭄바이 1600만 명, 서울과 상하이 각각 1350만 명 순이다. 그리고 이들 도시 인구에 크게 뒤 떨어지지 않은 도시들로는 리우데자네이로, 델리, 그레이더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이로, 지나 임바바, 자카르타, 바그다드, 테헤란, 카라치, 이스탄불, 다카, 마닐라, 베이징 등이 있는데 이들 도시에는 각 1000만 명에서 13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sup>41)</sup>

현재 한국에서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살고 있다. 그리고 도로의 발달로 전국토가 도시와의 연계성이 깊어지면서 거의 모든 지역이 도시 문화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 도시의 특징은 개인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이며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며, 매우 세속적이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경향성이 많이 드러나서 도덕의 타락과 부패가 도시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다. 또한 도시의 문제는 빈부의 격차와 공해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시 문화는 인간 소외로 인해서 고독과 공허함이 도시 문화의 대명사로 주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도시화의 현상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은 21세기에서 세계적인 경향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도시 선교의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시화 운동”이란 도시 문화의 방향성을 새롭게 가져가야 할 시대적 필요에 의하여 등장한 운동이다.

둘째, “성(聖:거룩)”이라는 말은 먼저 레위기에서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구절은 레위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되려고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할지어다”(레 11:45)라는 구절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

41) John E. Cox. *Problems and prospects of shelter and human settlements to the year 2000 and beyond* BKISTICS 53, no. 320/321, (September/October - November/December 1986), 266; Ralph W. Neighbour, Jr. 장학일 역, *썬 목회 지침서*. (서울: 서로사랑, 2000), 17-18 재인용.

하나님의 속성임을 의미한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 1:27). 이 말은 인간에게 거룩성(性)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거룩성이 사라졌다. 이것을 회복하려고하는 시도가 지금 레위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집트라고 하는 죄와 악의 도성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은 인간을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

거룩이란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구별하다’, ‘일반적인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다’, ‘거룩한 상태로 두다’ 등으로 사용되어진다. 대부분이 하나님과 관계하여 사용되어지며, 특히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즉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 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sup>42)</sup>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짐으로써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활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음을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들이다. 이들은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예배의 행동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즉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속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다.

셋째, 한편 이 구절의 “너희도”라는 말은 복수 형태로 쓰였다. 이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한 민족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나타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요”(살전 4:3)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 전서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 2:9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이 명령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들 믿는 모든 족속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라는 말은 당연함을 말하며, “거룩 하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서 명령문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문맥과 11

42) Willem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3: 877.

장에서의 분위기는 바로 속죄들 통하여 깨끗하여져야 함을 보여준다. 즉 더럽고, 불순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지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들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어진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 내셨습니다”(롬 5:8)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없이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거룩하게 하시며, 죄 없는 상태들 지속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골로새서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들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 1:22)라고 기록한다. 그러므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들 통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화(化)’라는 말속에 들어있는 뜻은 하나의 완성된 현실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끊임없는 변화들 의미한다. 모든 기독교 운동은 완전을 지향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뜻이다. 즉 종말론적인 완성을 이 땅에서 체험하면서, 또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말한다. 완성과 완전을 기대하면서도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들 인정하는 겸손 가운데서 끊임없는 추구들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운동’은 이 땅에서의 움직임 의미이다. 이것은 부단하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살아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다.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삶의 전부들 통해서 행해진다고 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모든 의미들 종합하면 “성시화 운동”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들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 개인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운동임과 동시에 교회의 거룩성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기독교적 문화와 가치관으로 변화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도시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다. 성시화 운동의 출발점에는 먼저 개인이 복음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들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운동이며,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성도임을 교회와 세상 앞에서 나타내는 운동이다. 이들 통해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들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되찾자는 운동이다. 또 이 교회가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교회들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교회요,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운동이다.

또한 이 거룩 운동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운동이다.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를 이루게 된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진정한 평화와 희락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룩 운동으로서의 성시화 운동을 총체적 복음운동이라고 부른다. 총체적이란 전 도시, 전 교단, 전 직장, 전 세대(generation), 전 가정, 전 나라를 포괄하는 운동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예수들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운동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sup>43)</sup>로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들 통해서 모든 도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모든 영역 즉 개인, 가정, 교회, 직장, 사회생활,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 등 그리스도인이 속한 모든 곳을 하나님의 통치아래에 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성시화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본질에서 같다.

레위기 19장 2절의 "너희는 거룩 하라"고 하는 명령에 의거하여 거룩 운동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하며, 그들이 속한 곳이 거룩해져야 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이 거룩 운동에 동참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번 장에서는 초대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종교와 사회에

43)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실제적이고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의롭고 평화스러운 사회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큰 영향을 끼쳤던 예루살렘의 성령 충만 사건과 종교 개혁 시대에 개신교 신앙 사회의 모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애썼던 칼빈의 제네바 운동, 또 1700년대 극심한 산업 혁명의 와중에서 가치관의 상실과 물질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웨슬리의 부흥운동과 1907년 김선주 목사들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평양 대 부흥 운동을 성시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이 운동의 맥을 잇는 것으로서 한국의 성시화 운동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sup>44)</sup>

## 제 2 절 성시화 운동의 역사

### 1. 예루살렘 성시화 운동

#### 가. 역사와 상황<sup>45)</sup>

1세기의 예루살렘은 사회, 종교, 경제, 정치적으로 현대와 매우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이방의 헬레니즘이 주류 문화들 형성하고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의 문화들 위협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예루살렘은 올리브유 제조업과 수공업 외에는 별다른 산업이 없었다. 따라서 성전세와 종계 무역세, 디아스포라 순례자들의 현금, 토지 수입의 십일조 등으로 경제를 꾸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헤롯은 건축에 열심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궁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다. 그리고 4년 간 축제를 열어 혈세를 낭비했다.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온갖 사치들 행했으며 예루살렘의 대사제들 역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온갖 사치들 행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과도한 세금 징수에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

44) 어거스틴과 같은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도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한 바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성시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세상 속에서의 실제적인 기독교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가보다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다분히 철학적인 사변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의 하나님의 도시에 대한 논의의 요약은 위해서는 Peter K. Lee, "The Concept of the City of God in Early Christian Thought," *Studia Patristica* 18/2 (1989): 99-107을 보라.

45) Joachim Jeremias,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Jerusalem zur Zeit Jesu)*, 한국 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94), 1-165 참고.



정치적으로는 유대 당국과 로마가 공존하고 있었다. 유대에서 일어나는 반란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와 유대는 항상 비상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유대 자체 내에서도 친 로마파와 반 로마파로 갈라져서 그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때에 종교 권력가들과 일반 시민들은 전혀 유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로 인해 당시의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종교 권력으로 인해 민간을 옥죄는 하나의 고문 도구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로지 다윗의 가문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유대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로서의 특권을 누리기만을 고대하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사실상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바람이었지 기득권층들의 기대는 아니었다.

#### 나. 운동의 진행과 결과<sup>46)</sup>

이와 같은 시기에 사도들의 운동은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성령 충만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앓은뱅이를 일으켰다. 또 부활한 예수들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선포하였다. 이 선포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들 믿게 되었고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행 2:43-47; 4:32-35).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들 이 땅에 보내었으나 유대인들이 그들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며 그 예수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그들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설교했다.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들 통해서 가까이 와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빌립도 전파하였고(행 8:12),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행 19:8),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알고 있었다(행 20:25; 28:23).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고난의 역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었다. 앓은뱅이가 걷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한 자가 풍요를 누리고, 죄인이 용서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행 3:1-10, 4:32-34, 5:12-16). 특

46) 제자들의 예수 운동은 뒤에 에베소교회 등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된다. 에베소에서의 마술 책을 태우는 등의 회개 운동은 성시화 운동과 일맥상통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운동만으로 한정하여 생각하도록 한다.

히 초대교회 공동체는, 경계 사회적 장벽을 타파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은 모여서 모두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자가 필요한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였으며, 빵을 나누며 식탁 공동체를 구성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행 2:43-46).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회개한 자들은 먼저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 두 번째로 소유를 공유하게 된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소유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된다. 네 번째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섯 번째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동체가 되며, 여섯 번째로 찬양 공동체가 된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모든 신분이 타파되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며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대하여 큰 호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행 2:47)고 나오는데 이 말은 이 공동체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말과 같고, 제자들의 수도 점점 증가했으며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행 6:7).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성장해 갔다. 제자들의 사역도 역시 유대인 중심에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 다. 결론

이 운동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탄생됨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아서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원칙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다. 이들의 주는 예수가 이들의 주님이었고, 이 사실은 그들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부활한 예수는 이들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바꾸게 하였다. 또 계급과 지역, 인종을 초월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 운동은 작은 자들의 운동이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당대의 비주류

계층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천하고 예수들 “주”요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사도들이 행한 예수 운동은 한편으로 세상 운동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드러나듯이 매우 급진적이면서도 사회변혁적인 운동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운동 즉 기존의 사회적 구조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그들만의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이것은 당시의 콰란 운동 등과 비슷한 점도 보이지만 이들의 지향점은 매우 달랐다. 콰란 운동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였지만 이들은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과 대항하면서 세상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이 속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라고 권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세상은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었으며, 이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주어지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예수 운동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초창기에 예루살렘의 주류 사회를 파고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운동은 기존 정치권과 사회 전체를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고, 당대의 정치 및 문화들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인간 재창조의 운동으로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점진적으로 성장하였고, 결국은 당대의 제국인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 그 운동의 정당성과 영향력을 입증한 것도 사실<sup>47)</sup>이라고 할 수 있다.

## 2.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 운동

### 가. 역사와 사회적 상황<sup>48)</sup>

16세기 제네바의 혁명은 프랑스 이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당시의 제네바

47) 기독교의 국교화는 뒤에 하나님 나라 운동의 쇠퇴로 인하여 정치 이데올로기와 야합하여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하나님 나라 운동 그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이 운동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48) 이철기, *세계교회사(I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등 참고.

는 1560년경에 약 오 천 명의 이주자들로 인해서 도시의 상하수도가 부족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으로 많이 황폐하게 되었다. 시의 많은 시민들은 독주를 마시기를 즐겨하였고, 정부의 대책은 매우 미미하였다. 또한 이 도시는 농업 도시가 아닌 상업 도시여서 식료품 등이 많이 수입되었다. 또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기 사용이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한 위생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제네바의 풍토병이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제네바는 혼잡하고, 질서가 없고, 위생 시설 미비로 인해서 더럽고 전염병이 쉽게 발병하는 도시였다. 당시의 이 도시는 매우 세속적이고, 알프스 산을 넘는 주요 통상로들 가진 상업 도시 국가였다. 여기에 수도원과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유분방한 삶을 좋아하는 공동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치적으로 제네바는 사보이 공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베른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사보이의 공작 찰스 3세는 제네바를 공격하였으나 제네바는 이를 잘 지켜내었다. 1532년부터 교황을 비판하는 개혁의 플렌카드가 걸리면서 제네바는 종교 개혁의 소용돌이 속으로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제네바와 가까운 프라이부르크 등이 카톨릭을 고수하고 있었으므로 파렐 등의 개혁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1533년부터 파렐과 프로망 등이 공중 설교를 하면서 개신교도와 카톨릭 사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1534년에 제네바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베른과 함께 하면서 프라이부르크와 관계를 청산하고 이로 인한 카톨릭의 공격 준비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일으킨다. 이에 힘을 얻은 파렐 등이 1535년 마드렌느 교회와 성 베드로 성당을 차지하면서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되어 성상 파괴폭동이 일어나고 미사가 철폐되며, 수도승과 수녀들이 도시에서 축출된다. 그 해 5월 21일 총회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적인 법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결의하여 종교 개혁이 본격화 되었다.

이 도시는 감독과 감독의 세속 행정관 및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네바의 시민들은 매년 총회로 모여서 네 평의원과 회계를 선출하였고, 이 총회는 25인으로 구성된 소의회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이 소의회가 임명한 60인 의회는 좀 더 큰 정책 문제들 논의하였다. 1527년에는 이 소의회와 이 소의회가 선출한 175인을 포함하는 200인 의회가 추가 되었다.

#### 나. 운동의 진행과 결과

파렐과 칼빈은 함께 제네바를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 개혁은 먼저 교회 내에서 시작되었다. 성상 숭배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오직 죄에 대해서만 설교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은총에 대하여 설교하기 시작했다. 당시 15세기 인간의 그리스도는 유아이거나, 십자가 위에서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또는 지옥을 유통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우는 엄격한 심판자 중의 어느 하나였다.<sup>49)</sup> 그리고 고해 성사는 사제의 사면의 선교가 죄인의 마음과 정신의 내부에 어떤 논증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만 유효했기 때문에 은총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설교는 혁명적이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었다. 칼빈은 그의 메시지가 제네바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전해지기를 매우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서신들을 작성하여 프랑스와 다른 서구 유럽의 지도자들과 자신의 꿈과 이상을 나누었다.

1536년 5월에 시의회 결의한 내용에 대하여 두 달 이후에 도착한 칼빈은 파렐에 의하여 작성된 신앙 고백을 시민들이 받아들일도록 강요하였다. 당시 시의회는 구체적으로 신성모독, 카드나 주사위 놀음, 도둑, 간부(姦夫), 그리고 불량자에 대한 은닉, 빵과 포도주들 부당한 가격에 파는 것, 무허가 술집 개설 등을 금지 하였고,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 세례도 금지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칼빈과 파렐은 더욱 완전한 개혁을 요구하면서 성만찬의 월례적인 거행, 출교의 필요성, 도덕에 대한 정부의 감독, 신앙 고백의 필요성, 새로운 결혼법, 청소년 교리문답 교육 등을 요청하는 진정서들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진정서는 성만찬 회수 외에는 시의회에서 다 인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고백은 시민들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시의회는 목사들이 정치들 종교에 혼합한 것을 발견하고 “파렐과 칼빈은 시장직(magistracy)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들 발의하였다.<sup>50)</sup> 그리고 시의회는 베른의 규제<sup>51)</sup>를 따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49) W. Fred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19.

50) 처음에는 개혁의 필요성에 의하여 칼빈의 개혁에 동참하였던 의회가 목사들이 단독으로 예배와 권징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보고 정치적 주도권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장이 조성되었고, 시민들은 파렐이 개인적으로 만든 신앙고백을 받아들일려고 하지 않음.

51) 베른의 예배 의식은 "세례는 세례반(stone fonts)을 가지고 해야 하며 떡은 무교병을 사

부활절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경고 하였다. 이에 불복한 파렐과 칼빈 등은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도시에서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그에서 3년을 보내게 된다.<sup>52)</sup> 그러는 동안에 칼빈 반대파가 1539년에 제네바에 불리한 조약을 베른과 체결함으로 인해서 시의회로부터 축출되고 칼빈 우호파가 집권함으로 그들 다시 초빙하여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개혁은 교회의 4중직을 중심으로 하는 “새 교회 헌법과 예배 모범”(L' Ordonnances Ecclesiastiques)을 제정하고, 종교 교육을 강화하여 교사의 지위를 높이고, 집사들은 가난한 자들을 관리하고, 병원의 감독 책임을 가지며, 장로들은 두 명은 소 의회에서, 네 명은 60인 의회에서, 여섯 명은 200인 의회로부터 선임되었고, 평의원 가운데 한사람이 의장이 되었다.

목사들은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들 해야 하고, 목사 후보생의 시험이나 문제 목사들에 대하여 논의하게 하였다. 또 장로들과 목사들은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교회적 치리들 행하게 하고, 심한 죄에 대해서는 출교까지 명하며 더 중한 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넘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종교 법원을 통해서 교회는 치리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시의 지도자들은 교회들 제네바 시의 정신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국(department)들 가운데 하나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칼빈의 사상 가운데서 이 둘은 둘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둘인 모습으로 존재하였다.

제네바에서 교회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만 하며, 부자와 세력자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지켜주도록 국가들 격려하여야 하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참된 종교들 향상시키고 교회의 치리들 시행하는 일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교회 자체의 지위들 공고히 다지며, 통치자들이 잘못할 때에 그들을 경고하는 일을 하여야 하였다.<sup>53)</sup>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식량을 가지고 투기들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당시의 고리 대금업을 금지하였다. 또 사람의 생명을 착취하는 그 어떤 제도나 관습도 거부하였다. 그리고 세금은 가능한 공공복리의 후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노동의 신성함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신성함은 공익에 봉사하고, 공동체에 선하고 유익한 한에서 신성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둘 사이의 차이는 매우 사소한 것임.

52) W. Fred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37-41.

53) Ibid.. 82-89.

해서는 그의 행위들 강도와 같다고 하며,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강도와 같다고 하여 노동자들의 일하는 도구들 저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부자들에게는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최소 임금 이상을 주어야 하고, 그 일에 합당한 충분한 임금을 꼭 지불하여야 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집사 직을 세워서 돈을 다루고 구빈원을 정돈하고 감독하며,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였다. 공립 구빈원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없는 병자와 노인,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살피도록 하였다. 이들 위하여 의사와 외과의들 고용하였다. 1544년에는 공공 세출의 5분의 1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1546년에 통과 된 지방 교구 조례로 징수된 모든 벌금의 삼분의 일이 교구와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다른 삼분의 일은 집사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 다른 두 가지 수입은 기부금과 책의 인세 등으로 충당하였다.

1558년에는 시의회에 의하여 “사치 금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빈곤 퇴치의 일환으로 음식과 의복에서의 지나친 소비를 금지하는 것으로 카드와 주사위 등의 노름의 폐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금지하였다. 술집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고,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여야 하고, 부도덕한 말이나 주사위 놀이, 춤, 부정한 노래 등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시도들 하였으나 한 달이 못되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1564년에는 법으로 금목걸이, 귀금속, 자수품등 여성 사치품들과 함께 기술자의 부인들과 그들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소녀들이 옷 입는 것을 시종드는 부인들을 억제하는 제한들도 있었다. 그리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구빈원등을 통한 복음 전파를 중시하여 제네바 대학 등을 설립하였으며 의무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리문답 등을 가르쳤다.

제네바시의 1541년 교회 법령은 결혼에 관한 것으로 시의회가 결혼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545년에 결혼법을 만든다. 여기서 모든 결혼 소송은 먼저 종교 법원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결혼법을 통해서 당시의 관념을 넘어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혼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였고,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결혼법은 성과 속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영역에 교회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보인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세속 사회와 하나님의 통치에 연결 고리들 만들었다.

복음이 세상의 정치들 변화시키지 않으며, 세속 국가에 속한 법률을 만들지 않는다. 왕, 군주 및 행정 장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들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통치들 적절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베풀어 주셨다<sup>54)</sup>

칼빈은 그의 설교 가운데서도 인간 사회의 문제점들을 매우 세세하게 다루었다. 특별히 인간의 죄성과 죄에 대하여 세밀하게 다룬다. 그는 투기꾼들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들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평등을 말한다. 소유와 지식과 권력에 의해 구별되지 않고 창조적 질서에 따른 평등이다. 사회적 관계에서 계급 계도는 존재한다. 그 관계는 불평등함을 인정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구실아래 외적인 질서 및 정치적인 질서들 억압할 수 없으나 이 질서와 모든 다른 인간들에게서, 자비와 상호간의 관심을 요청할 수는 있음을 말한다.<sup>55)</sup>

칼빈에게서는 두 권력(사회 권력과 교회 권력)들 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두 세력이 다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있었으므로 교회의 과업은 국가에 대해 언제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이었다.<sup>56)</sup> 그래서 그는 현실 정치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제네바의 변화들 위하여 노력하였다.

직공과 경영주의 관계들 고려하여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제들 도입하였고, 노동시간과 노동 일수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하였다. 칼빈과 제네바 운동의 최대 교훈 중의 하나는 종교와 정치, 종교와 경제, 또는 종교와 사회들 구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들의 간섭은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었고, 목사들과 시의회는 온정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인간과 산업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칼빈은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형제들과 함께 나누

54) Opera. 51. 797. "사무엘상 42장에 관한 설교",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242 재인용.

55) W. Fred Graham. *사회적 혁명가 칼빈*, 77-79.

56) Ibid., 89.



는 장소라고 정의하면서 목사들도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그들의 활동 범위라고 말한다. 그는 교회와 국가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신성과 세속관의 구별은 인정하지 않았다.<sup>57)</sup>

#### 다. 결론

칼빈 사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성서만으로’였다. 이것은 그의 신앙의 원리이며 삶의 원리였다. 이 원리는 교회 내에서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삶도 주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목사인 칼빈은 200인으로 구성된 의회의 자문 역할을 감당하였다. 칼빈의 사상은 성과 속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교회와, 교회와 관련된 일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현장이 성직의 장이며, 인간이 가진 달란트들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의 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직업과 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곳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은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의무적인 교회 참석에 대한 강제 등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약화되었으며, 지나치게 많은 규제로 인해서 예술과 학문의 발달이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을 통해서 제네바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유럽의 도시들이 부패와 타락이 심하였다면 자유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독립을 유지하고, 자치를 이루는 도시가 되게 하였다. 여기서 칼빈이 추구한 도시는 교회와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도시 전체의 삶을 경건한 분위기로 가져가는 성과 속을 하나로 묶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사회가 보다 정직해지고, 나눔이 현재화 되며,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한편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칼빈의 개혁주의 교회는 말로 프랑스나 영국에서 입증 되었듯이 정부의 억압에 항거하는바 종교 개혁이 낳은 유일한 제도였다.<sup>58)</sup>

57) W. Fred Graham. *사회적 혁명가 칼빈*. 217.

58) 이형기. *세계교회사 1*. 130.

### 3. 요한 웨슬리의 성결 운동

#### 가. 역사와 사회적 상황<sup>59)</sup>

18세기 영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미약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국은 약소국의 대열이었다. 당시는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기계기술의 발명으로 인한 산업혁명의 초기단계였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였다. 당시의 영국의 식민지 기반은 약하였고, 스튜어트 왕조의 복위를 원하는 왕정 복위주의자들과의 내전 등으로 인해서 어수선하였다. 고위층에는 부정부패, 인사 청탁, 방만한 운영이 만연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부분이 총체적인 부패와 무능함으로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었다. 도시 자치제 법으로 비국교도가 된다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였고, 모든 지방 자치 단체들은 뇌물과 부패로 움직였다.

신앙의 부분에서는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말해도 좋을 상황이었다. 어디에도 영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부분은 없었다. 당시의 교회는 감탄할 만큼 좋은 신조 조항들과 유서 깊은 예배 형식, 체계적인 교구 조직, 주일 예배와 함께 만 명이 넘는 사제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형식만 존재할 뿐이었다. 비국교도 역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양쪽 모두 살아 있으나 간신히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고, 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안락함이 비국교도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기도방식 통일령<sup>60)</sup>으로 인해서 교회는 활동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다. 자연주의 신학과 도덕주의, 정통주의가 교회와 예배의 주요 가르침이었다. 교회는 오직 윤리적인 기관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무신앙과 회의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주교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 바가 없었고, 선한 일이나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복음 전파 등을 통해서 지나치게 종교적이 될까 두려워하였다. 오직 세속적 평안과 안락을 꿈꾸면서 먹고 마시고 사냥하고, 무도회를 여는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았다.

59) J. C. Ryle, *18세기 영국의 영적 거장들 (Christian Leaders of The Eighteenth Century)*, 송용자 역 (서울: 지평서원, 2005), 17-29.

60) 1559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선포한 것으로 모든 예배를 이 예배모범에 일치하게 드려야 한다고 하여 예배가 형식화 되는 원인을 제공함.

교회 내에서도 사회에서 지성은 다 사라지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도덕 생활에서도 결투, 간통, 간음, 도박, 사기, 주일 성수 파괴, 술 취함 등은 일반적이였다. 주일학교도 없고, 노예무역도 금지되지 않았고, 감옥 제도도 개혁되지 않았으며 성경 연구회도 빈민 선교도, 목회자 후원회도, 해외 선교 모임도 전혀 존재하지 않은 때였다. 다시 말하면 역사상 국교회는 노동자 계층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당시 국교회 교인이 500만이었지만 영혼구원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리고 교회의 전통과 제도와 의식에 치중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냉랭하고 생명력과 실천력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였다.<sup>61)</sup>

#### 나. 운동의 진행과 결과

당시 웨슬리 운동은 단순하게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인 복음을 증거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였다. 이 운동은 시작부터 사랑의 실천 운동이었다.

웨슬리는 진정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가르쳤다. 그는 “믿음은 사랑하기 위한 방편이며, 사랑은 선행을 위한 방편이며, 선행은 성결을 위한 방편이며, 성결은 행복을 위한 방편이다”<sup>62)</sup>라고 하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운동의 기본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였다. 그의 부흥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실천하는 기독교’였다. 이것은 교리들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여 그 교리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교리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을 선행(Good Works)이라고 믿었고, 선행은 구원의 외적 증거(Outward Witness)”<sup>63)</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이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으로 돈에 대한 태도를 확고히 하였고,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부자란 ‘자신과 가족의 먹을 것과 입고 덮을 것 이상을 소유하는 자’이며, ‘생활의 필수품과 상식적 편리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자’라고 정의하였다.<sup>64)</sup>

61) 김진두, *웨슬리와 사랑의 혁명* (서울: 도서출판 감신, 2003), 25.

62) Albert C. Outler, *"Theology In The Wesleyan Spirit"*, (Discipleship Resources, Nashville, 1974), 85-86. 김진두, *웨슬리와 사랑의 혁명*, 37 재인용.

63) 김진두, *웨슬리와 사랑의 혁명*, 38.

64) "The danger of riches."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ition:

그러면서 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신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무신론으로부터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하였다. 웨슬리에게서 돈을 사용하는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보여 졌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돈의 청지기이지 돈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는 설교 ‘선한 청지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빚입니다 .... 청지기는 자기 손에 가진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할 자유도 권리도 없으며 오직 그 주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재물 중에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위탁받은 관리인일 뿐입니다.<sup>65)</sup>

곧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물 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손에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부자들이 필요 이상의 부를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웨슬리는 청지기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태도들로 인해서 웨슬리 운동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별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라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웨슬리는 운동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수입에서 매년 일정액인 28파운드(2000년 경 한국 돈으로 약 2800만원)만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평생 평균적으로 일 년에 1,400파운드(2000년 경 한국 돈으로 약 10억원)를 선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당시 영국 사회의 고아들과 과부와 홀아비들은 모두 이 운동의 혜택을 입었다.

초기 웨슬리 운동의 집회소들은 신앙 훈련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보 센터와 가난한 집 자녀들의 학교요, 약국이요, 병원이었고, 가난한 영세 상인들을 위한 신용 협동조합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하여 물보는 생활을 규칙적으로 시행하였다. 웨슬리는 단순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Abingdon, 1988) 3권, 230. 김진두, *웨슬리의 사랑의 혁명*, 41 재인용.

65) "The good steward." (Works BE.7), 139. 김진두, *웨슬리와 사랑의 혁명*, 45 재인용.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특히 웨슬리의 독특한 사역은 자신의 경제생활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할 수 있는 한 저축하였고,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는 1746년에는 신용조합기금을 만들어서 영세 사업자들을 도왔고, 실업자 고용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가내 수공업을 제공하였다.

웨슬리는 고아들을 위해서 1743년 뉴카슬에 고아원을 설립하여 당시 영국 북부 산업지대의 고아들의 대부분을 돌보았다. 1806년에는 평신도에 의해서 여자 고아원이 설립되었다. 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집과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이 주일학교는 뒤에 학교로 확장되었다. 과부와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구빈원’(The Poor House)을 세워서 가난한 과부나 노인들이 여기서 살게 하였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 동지회’(The Strangers' Friendly Society)와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하여 집 없는 사람들, 공장의 가난한 노동자들, 갈데없는 환자들에게 숙소와 식사들 겸한 쉴 곳을 제공하였다. 감옥의 죄수들을 위해서도 교도소를 방문하여 죄수 전도와 목회들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였다. 당시 감옥은 매우 열악하여서 감옥의 환경과 죄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운동을 벌였고, 원목 파송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서 교도소 선교에 힘썼다.

한편 의료 봉사활동으로 고아원 내에 무료 진료소를 시작으로 자신이 직접 의학을 배우기도 하였고, 질병 치료에 대한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직접 전기 치료기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노예 제도들 반대하여 노예 해방 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774년 ‘노예 제도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글을 출판하면서 노예 제도의 최악성을 고발하였다. 그는 흑인의 동등성을 주장하면서 월버포스 등 노예해방론자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교육 사업으로는 1784년에 킹스우드 학교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브리스틀에는 ‘The New School House’를 세웠고 런던 파운드리 예배당에서도 학교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학교들을 통한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진정한 종교의 원리들을 주입시킴으로써 그들의 정신을 지혜롭고 성결하게 형성시키며, 전통적인 경건 훈련을 통하여 그들을 이성적이고 성서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sup>66)</sup>

웨슬리는 성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도회들 만들고, 싸고 쉬운 책을 출간하고 설교들 통하여 대중 교육을 하고, 찬송을 통하여 교육을 하였다. 그래서 신도회가 각 지역에서 성인 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기독교인의 생활까지를 책임지는 평생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웨슬리 운동은 하나의 사회도덕생활 개혁을 목표로 한 절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음주를 적극 반대하여 금주 운동을 실시하였다. 그가 속한 Holy Club은 동료 회원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 성경 탐구, 고전 연구, 자기 성찰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법도들 지키며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죄수들을 돌보는 경건을 실천했다.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웨슬리 운동은 부유층보다도 산업 지대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영국의 노동자들은 공산주의 보다는 웨슬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웨슬리 운동은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평등과 자유사상을 불어넣었으며 복음적 사랑을 경험하고 실행하게 하였고, 도덕 생활에서 변화들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이들을 교육하여 지도자로 성장 시켰으며, 실제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만들어 주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이겨나갔다.

노동자 선교들 위해서 루튼 산업선교 대학을 설립하여 기독교 신앙을 기술, 산업, 상업 영역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연관시키고,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산업 선교 훈련을 시키며, 기독교 사업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들 주로 인정하고 또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현장 내용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sup>67)</sup>

#### 다. 결론

웨슬리 운동의 초창기 표어 ‘칭의’, ‘성화’, ‘일주일일 일 페니’ 속에 그 사역의 대부분이 표현되어 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았고, 구빈원을

66) Henry D. Rack. "Reasonable Enthusiast." (Epworth, 1989). 355-356. 김진두, *웨슬리의 사랑의 혁명*. 91 재인용.

67) 김진두, *웨슬리와 사랑의 혁명*. 58-106.

방문하여 넉넉한 사람들에게서 모금한 돈으로 그들을 도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었다.

웨슬리 복음 운동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와 존엄, 그리고 인격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나누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고, 자신들의 마음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sup>68)</sup> 이 운동은 웨슬리의 철저한 자기 헌신과 투명한 재정관리, 그리고 순수한 자기 포기과 복음의 체화로부터 시작되어진 운동이다. 이 운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과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운동이었다. 즉 웨슬리 운동은 실천적인 기독교를 강조하면서 정통의 교리와 정통의 경험과 정통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웨슬리 운동의 특징은 바로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가져간 운동이다. 그리고 이 운동의 출발점으로 자기 자신의 변화들 우선적으로 하였다. 웨슬리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운동은 이들 통한 자신의 성결운동, 모두와 함께하는 박애운동,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운동은 복음의 사랑 운동이었으며 정치 운동은 아니었지만 정치와 사회 전반에 매우 큰 변화들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운동이었다. 이와 같이 그 운동은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들 이끌어왔고 역사 속에서 큰 발자취들 남기게 되면서 후대의 성시화 운동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Holy Club 등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4. 평양 성시화 운동

##### 가. 역사와 사회적 상황<sup>69)</sup>

1866년 프랑스가 7척의 군함과 600명의 병력으로 강화도를 침범한 병인양요 이래로 1871년 미국의 강화도 침공 사건인 신미양요, 1873년의 대원군의 경복궁 건립을 위한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한 중세가 문제가 되어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서 심각하게 되고 명성황후들 중심으로 하는 외척의 특세가 있었다.

68) 김진두, *웨슬리와 사랑의 혁명*, 64-65.

6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99-299.

1875년 일본이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고, 1876년 일본과 조일통상조약을 체결하고, 1882년에는 조미통상, 조영통상, 조독 통상을 체결하게 된다. 같은 해에 임오군란으로 청나라가 마산에 4천명, 일본은 인천에 1500명의 군대를 파견하는데 대원군이 청나라에 일본군을 격퇴해 줄 것을 의뢰하여 청나라가 서울을 장악하고 용산에 3천명의 군대가 주둔하게 된다. 1884년 김옥균 등을 중심으로 한 갑신정변은 실패로 돌아간다. 이로 인해서 정부는 정치적 실권을 상실하게 되고, 통상조약의 실패로 인해서 상권을 상실하게 되고, 수입품 관리 실패로 공업화가 쇠퇴하게 되었다. 또한 곡물 수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은 상승하고 재정 수입을 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1894년에는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고, 청, 러,일의 다툼 속에서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이 있었다. 1896년에는 고종의 아관파천이 있었고 1897년에는 고종의 황무개혁으로 정국의 변화들 꾀하였다. 1905년에는 러일 전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있었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와 일본 수상 가츠라 다로(桂太郎) 사이에 '가츠라-테프트 메모'라는 비밀 협정이 조인되어 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치를 암묵적으로 인정하였다.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1906년에 이등박문이 통감으로 왔다. 이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고종이 헤이그의 만국박람회 특사를 보내어 일본의 조선 강점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려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본은 1907년에 7항으로 된 정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경찰권과 군대를 일본이 장악하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또한 행정부의 모든 결정은 통감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차관 정치들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 교회는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토마스목사가 순교한 이후에 1882년에 조미통상조약을 맺고 이로 말미암아서 1884년에 알렌이 의사의 자격으로 입국을 하게 되고 1885년에 언더우드가 조선에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뒤이어 1885년에 헤론이 입국하여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1884년의 갑신정변 시에 부상당한 민영익을 알렌이 치료함으로써 인해서 기독교 선교가 활기를 띠게 된다.

언더우드와 알렌 등은 의료와 교육 등을 통해서 선교에 힘을 다하였다. 당시 한국 교회는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였고, 선교사 중심의 교회였다.



1907년의 부흥 운동은 아직 어린 교회의 상황과 정치적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 나. 운동의 진행과 결과

1903년 하디의 회심을 중심으로 시작된 원산부흥운동이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통해서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평양에서도 1906년 평양 거주 선교사들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모든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이를 통하여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본인과 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 되는 것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격변기 속에서 오직 영적인 성장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삶에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감동이 일어나 8월에 장감 선교사들이 합동으로 성경 공부 모임과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10월에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특별사경회가 있었고, 11월부터 김선주 목사가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를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907년 1월에 열린 평양 사경회는 1000여명이 모여 성경공부와 기도에 주력하였고, 매일 저녁 특별전도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인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변화가 주어졌다. 이 운동을 통하여 주어진 회개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실재적이었으며, 대중 앞에서 행하여졌다.

평양 성시화 운동의 특징으로는 첫째 무엇보다도 영적인 각성을 들 수가 있다. 평양 대 부흥운동은 “대 각성 운동”이라고도 불리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까지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을 이제는 죄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죄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던 많은 일들을(축첩이나 도둑질, 탐욕, 살인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직접 서게 되고, 그들 통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과 관습, 삶 속에 자신도 모르게 뿌리박고 있던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확실히 부흥운동으로 한국인들은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들 성령의 역사들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전 보다 더 분명한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sup>70)</sup> 이러한 변화는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 이 운동이 기독

교의 윤리 의식을 한 차원 높여서 일반적인 사회인들과의 차별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직해 진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착복한 돈을 돌려주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 포기하였다.

두 번째로 부흥 운동은 진리를 알려는 열망을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알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진리를 알려는 자들이 한국 교회로 몰려왔다.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을 그 사명으로 알았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로의 철저한 영적 변혁은 진리의 인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오랜 기간에 걸친 영적 대화들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변혁을 이끌어온 두 가지들 들면 성경 공부와 기도 운동이다. 성경 공부에 특별히 열심이었던 기독교인들은 성경 공부들 단순한 지식의 축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데 큰 힘을 기울였다.

교회는 사경회들 진행하면서 오전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조혼, 교육, 청결, 흡연 등과 같은 주제로 열린 집회 형식을 취하였다.<sup>70)</sup> 또한 아편 등을 엄격하게 금하였다. 또한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며, 여성에게도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말씀 공부로 인해서 무지로 인한 우상숭배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다. 한국인들 가운데 왕성한 애니미즘 사상과 정령 숭배, 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상과 불교, 유교 등은 또 새로운 접착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은 영혼의 우주적인 현존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본질에 대한 교리들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이며 반드시 도덕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유교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기독교 윤리들 신실하게 증거 하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 한국인들이 이방 신에게 값진 제사들 드리던 바로 자원하는 그 기꺼움이 하나님에 대한 자유롭고 솔직하며 전심 어린 사랑과 그들의 동료에 대한 봉사로 전환되었다.<sup>72)</sup>

70) Roy E.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56-57. 박용규, *평양 대 부흥운동*, 457 재인용.

71) J. Z. Moor, *The Great Revival Year*, 116. 박용규 역, *평양 대 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472 재인용.

72) Geo. Heber Jones, *The Native Religions*, KMF IV : 2 (Feb., 1908), 29. 박용규역, *평양 대 부흥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484 재인용.

조상 숭배를 금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려하고 민족 문화 정체성과 문화 제국주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한국인들이 조상숭배를 금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오던 조상숭배 사상이 채워주지 못했던 영적 욕구를 기독교가 채워줬기 때문이다.”<sup>73)</sup>

이 일로 인해서 한국인에 의한 한국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다. 복음은 선교사들로부터 받았지만 한국적인 토착화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새벽 기도 운동, 통성 기도, 합심 기도 등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다. 아울러, 기독교를 통한 변화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시각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특별히 여학교가 건립되고 당시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넘어서 교회가 사역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을 관할하던 군수들이 기독교를 지원하는 경향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치인들도 기독교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회의 연합운동이 이로 인해서 태동하게 되었다. 모든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등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복음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가 되어 추진하였다. 지역을 분할하여 경쟁하지 않았고, 연합사업으로 학교를 세워 운영하였다.

#### 다. 평양 성시화 운동의 문제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몰입하여서 개인 구원과 회개의 역사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신비적인 체험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교육과 개인의 인격에서 큰 변화들 가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의식이 부족하여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약화 된 면도 있다. 또한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여 오직 교회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는 연관성이 적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 1909년 한일 합방과 함께 이토오 히로부미가 정교 분리 정책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정치 참여가 부정되었다. 이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은 사회와의 끈은 약화되고 교회 중심적이고, 내세지향적인 운동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사회 문제는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기도의 제목과 여러 활동들이 교회 내부의 문제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기독교의 진정한 사회 개혁적인 부분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된 부

73) 박용규, *평양 대 부흥 운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488.

분도 있다.

#### 라. 결론

평양에서 일어난 대 부흥의 운동은 전도 운동도 아니고 사회 개혁 운동도 아니었다. 이 운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난 하나의 회개 운동으로 출발하였다.<sup>74)</sup>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였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조선 시대의 유교와 토속 신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참된 윤리가 무엇인지들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죄들 깨닫게 되었다. 유교의 체면 문화 등으로 남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또 가능한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은 드러내려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모르고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죄들 다 고백하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들 이루어나가게 된다. 이 회개 운동이 영적 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고, 이 영적 각성 운동이 구령의 열정으로 옮겨가서 자연스럽게 개인 전도의 불길을 당겼다. 이것이 사회 구원과 민족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교회는 정치적 집단이 아니고, 정치들 넘어서는 일을 하여야하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은 정치들 넘어서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죄의 문제들 해결하고 이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운동이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회개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이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한민족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들 맛보게 하여 이들이 힘든 고난의 역사들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건이다.

20세기 초의 매우 혼란하고 어려웠던 한반도에서 평양의 대 부흥 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육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가 정화되고, 한국적 기독교가 정립되는 놀라운 결과들 가져오게 됨으로 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는데 기여했다.

74) 본 논문 32와 비교.

## 5. 춘천 성시화 운동

### 가. 춘천 성시화 운동의 사회적 상황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어졌던 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에게 축복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속에 지금 있는 문제들 만드는 시작점이었다. 당시 군사 독재의 압제로 인해서 교회의 한 부류는 적극적으로 반정부 운동을 하였고, 복음주의 권에서는 사회 지도층의 의식 개혁 운동과 실재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현재의 상황 속에서 현 사회를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반정부 운동보다는 성시화 운동으로 그 물꼬를 트기 시작하였다.

이 일은 1972년 춘천에서 먼저 대학생 선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가 소강상태를 보인다. 약 20년 후에 이 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 전용태씨가 검사로 춘천 지검에 근무하게 되면서 법조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사회의 범죄를 직접 다루면서 이 범죄를 해결하는 방안이 단순한 처벌이나 교화 작업만으로는 어려운 것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이 민족을 치유하여 나가자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시작하였다.<sup>75)</sup>

### 나. 운동의 진행과 결과

실질적으로 이 운동은 복음 전도 운동이었다. 그래서 개인전도 훈련을 통한 개인전도와 교회 성장 운동을 먼저 실시하였다. 1970년도만 하여도 한국 교회의 성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성장은 그 당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전도 운동을 통하여 춘천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운동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행사는 오직 순수 전도이다. 불신자는 예수 영접을, 신자는 성령 충만을 목적으로 할 때만 축복을 받는다. 다른 것은 부산물로 주어질 것이다”<sup>76)</sup>라고 하면서 개인전도 운동을 통한 복음화에 집중하면서 복음 전도를 통한 지역 변화들 위하여 힘을 썼다. 또한 그 지역의 청소와 생활 개선 운동을 진행하면서 좋은 이미지들 가지려

75) 김준곤, *춘천 성시화 운동 비망록*, 미간행 자료, 19.1972년에 대학생 선교회에 의하여 춘천에서 “춘천 성시화 운동” 이 시작되었다가 그 이후에 1992년에 전용태, 양인평 등에 의하여 다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음.

76) Ibid., 30.

고 노력하였다.

춘천 성시화 운동의 문제점은 먼저 매우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었다. 또 사회의 구조 개혁과 정치 질서의 변화들 추구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단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개인의 문제들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 단체 들이나 기독교인들은 교회 모임과 선교 단체들의 모임, 그리고 여러 신앙에 관련되는 일들과 교회 내부에서 행해지는 일들에는 열심이였으나 학교 동아리 모임, 총학생회, 정부 관련 모임 등의 일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멀리하였다. 그것을 통해서 공식적인 정부의 모든 정책 과정에서 멀어지고 사회 속에서 자신을 고립화 시켜서 영향력을 스스로 감소시키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실질적인 반사회나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기타의 주민 자치 단체들에는 아무도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일들은 두 세계를 지나치게 구분함으로 교회 일이나 선교 단체의 일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오해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즉 새로운 일을 세상 속에서 하지만 이것 역시 교회 내에서, 즉 그리스도인들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개인전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변화들 목표로 삼았지만, 이 운동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교회 내부의 행사로 전락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 내부의 운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정치들 변화시키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소외된 사람들과 정치범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혜적인 사회 운동을 함으로 가지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한 운동이어서 귀족적 성향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쉽게 변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주의와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실시된 운동의 한계이기도 하였다.

#### 다. 결론

이 운동은 일반 성도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참여로 진행되었고, 개인 전도도 무척 활발하였다. 또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에 좋은 영

향력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운동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그 구조와 구습을 바꾸기 위한 개혁을 운동을 한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운동 역시 개인 복음 운동의 차원에서 행하여진 교회의 운동이었다. 또한 이 운동은 오래 동안 분명한 동기를 상실하였다. 대학생 선교회로부터 시작하였다는 한계가 그 속에 있어서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못자리의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춘천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가졌던 사회의 변화와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지속적으로 이들 속에 있었고, 이러한 운동을 곳곳에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지부들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의 방향성에 대하여 공감은 하고 많은 지부들을 만들었지만 이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또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동기부여하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운동에 동참시키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운동은 모양은 있는데 구체적인 동력이 없어지지 부진하여 큰 영향력이 없었다. 또한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이 없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와 싸우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학문적, 신학적 무기과 삶의 변화들 위한 많은 훈련의 과정과 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너무나 세상적 싸움을 단순화하여,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세상은 다 변한다고 하는 순진한 복음주의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서 운동은 그 역동성을 잃어버렸고, 큰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운동 특히 성도들의 세상 속에서의 운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 제 4 장

### 성시화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항 성시화 운동

#### 제 1 절 포항 성시화 운동의 의의

포항 성시화 운동은 시대의 요청에 의하여 탄생되어진 운동이다. 앞의 성시화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공유하기는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포항지역의 시장과 국회의원, 검사, 판사 그리고 각 학교의 장들과 병원장들이 모여서 함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고 하는 헌신 아래 시작된 운동이다.

그러나 이 성시화운동이 이 시대의 진공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유구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하나 됨을 지키고, 교회의 연합과 복음전파에 열심이었던 포항교회의 성장과 함께한 운동이다. 포항은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보다는 복음화율이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sup>77)</sup> 그렇지만 아직도 교회는 대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공유하지 못하였고, 교회의 구조와 사업에서 사회와의 관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까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새롭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고 Holy Club<sup>78)</sup>을 형성하였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점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도 영향

77) 2005년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불교인이 약 34퍼센트이고, 기독교인이 약 11.5퍼센트, 천주교인이 약 7퍼센트인데 반하여 포항시에서는 불교인이 약 32.7퍼센트이고, 기독교인이 14.6퍼센트, 천주교인이 7.5퍼센트이다.

78) 본 논문 60. 요한 웨슬리가 처음 경건 운동을 시작하면서 조직하였던 경건모임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함.



을 주어서 교회들의 연합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서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가 치러지게 되었다. 또한 이 운동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서, 각각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보다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평신도 중심의 성시화 운동은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운동들과 공통점도 많이 공유하지만 그와 함께 21세기 기독교 운동의 중심으로서 일반 성도들이 운동의 중심에 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운동으로 등장하였다.

## 제 2 절 포항 성시화 운동의 역사적 상황과 배경

### 1. 역사적 상황

포항 성시화 운동이 시작된 2002년은 기독교에 있어서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세계는 많은 것에서 변화가 주어지고 있다. 18세기부터 시작된 합리주의가 1, 2차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낭만적 세계관을 포기하게 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리고 세계의 미래에 대하여 암울한 전망을 가지게 된다. 또한 과거 식민지 시대들 통하여 세계의 만남이 있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는 모두가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문명이 서로 조우하는 것도 쉬워졌다. 그래서 문명 간에 충돌도 일어났다. 이와 함께 기독교 중심적이며 서구중심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문명과 종교들에게 같은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적 사고와 맞물려서 종교계와 일반 사회에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각자의 삶에 맞는 가치관과 윤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다. 이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가치가 인정받게 되고 각자의 문화와 종교의 독특성을 인정하게 되면 세계의 평화는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종교 근본주의적 시각이 더 힘을 얻어서 미국에서는 9.11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힌두교 근본주의와 무슬림 근본주의가 더 힘을 받게 되었다. 또한 민족주의가 더 발흥하게 되어 민족 중심과 국가 중심으로 돌아가 오히려 보수적 성향을 띠는 나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군사 정부가 막을 내리고 제 3기 문민정부로서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출현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그리고 사회의 가치관 모두에 변화들 가져 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 사회가 변해야 하고, 과거 이 시대들 이끌어왔던 가치관과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겠다고 하는 회의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갈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의 가슴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평등한 사회의 꿈과 모두가 잘사는 나라라는 기대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아직도 사회주의적 이상인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꿈이 있다. 이러한 꿈을 과거의 정부나 부자들로부터 이러한 기대들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이 드러난 것이기도 할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한국의 과거 문제점 들 중의 하나로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의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면서 이 시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현 정부와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시절 민주화 운동의 시기에 대다수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민주화들 위한 자신들의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독재 정권과 야합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민주화들 함께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의 관점을 온전한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진보주의자들은 사회의 변혁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전파하며 민주화와 인권 및 사회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가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복음을 지나치게 사회구원으로 받아들여 당시 국민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지 못했고,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은 교회에게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들 요구한다. 현재의 한국 교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가 공존한다. 교회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하므로 그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비평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즉 사람들의 비평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끊임없는 자기 개혁의 추구가 요구된다.

사회인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교인들은 지식인이요, 앞서가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교회가 과거의 모습에 젖어 있는 가운데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였다. 교회의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기자재들, 그리고 교육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는 너무 빨리 앞으로 나가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젊은이들로부터 외면 받기 시작하였고, 교회는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곳이 되어버렸다.

교회에 대한 사회인들의 비평이 악의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호의를 가지고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새롭게 찾아야 할 위기의 시간임을 자각하여야만 하는 때이다. 또한 다원주의가 사회의 주된 사상으로 되면서, 동성애자, 성전환자, 병역기피자 등 과거의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는 교회는 권위 의식과 과거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아울러,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생명윤리의 부분에도 무관심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정리된 교회의 의견이 주어지지 않아서 사회와 교회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이면에는 교회가 사회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대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교회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대 사회적 책임과 온 세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윤리적인 부분에서나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 사역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 2. 포항 성시화 운동의 배경

포항의 성시화 운동의 시작은 춘천 성시화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천 성시화 운동 등을 거쳐서 2002년에 포항에서 조직된 홀리 클럽<sup>79)</sup>에 의해서 시작

79) 2002년에 한동대 선린병원 병원장으로 이진오 원장이 부임해 오면서 지역의 병원장, 학원이사장, 학장, 총장, 법원장, 판사, 검사, 시장, 시의회위원장, 국회의원 등을 모아서 기관장 홀리 클럽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어 목회자 홀리 클럽이 만들어지면서 포항 성시화 운동의 기틀이 된다. 홀리 클럽은 2004년 5월 현재 전국 22개 지역 세계 7개 도시에 조직되어 있으며 성시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되어진 운동이다. 이 운동은 이건오 원장이 선린병원장으로 부임할 때에 부임 축하를 하러온 전국 홀리 클럽 회장이었던 이영덕 장로가 축사에서 “포항 성시화”를 위하여 일하라고 한데서 시작하였다. 여기에 참석하였던 포항시장이 “성시화”가 무엇인지들 이건오 원장에게 자세하게 물었고, 그 취지에 공감하여 몇몇 지역 인사들의 이름을 적어주면서 이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적자투성이인 병원 경영을 앞에 두고 성시화를 한다고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다고 생각한 이건오 원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성시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시작할 것이고 아니면 이 일을 일단 접어두고 병원 경영에 힘쓸 것”이라고 기도하였다. 그가 첫 번 만난 사람은 당시 선린대학장이던 전일평장로이다. 그가 성시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 듣고는 이 일은 자신들이 너무나 기다리던 일이라고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은 먼저 포항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과 함께 포항 성시화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지역 사회의 기관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하였다. 시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판검사들 그리고 각 학교의 이사장들 및 대학의 학장들로 구성된 약 26명의 기관장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모여서 성경 공부들 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사도행전을 공부한 다음 로마서들 공부하였다. 그리고 많은 기관장들이 함께 사도바울의 행적을 돌아보는 소아시아 성지 여행을 하며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나누면서 이 운동이 힘을 더하게 되었다. 목회자들도 같이 모여서 매주 1회 성경 공부들 하면서 자신의 목회들 나누고, 각 교파간의 벽을 허무며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확인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 연합 운동으로 진행되었다.

이 운동이 성공하는 데는 포항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지지대가 뒤에 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포항제일교회와 기타 약 50년의 역사를 가진 많은 교회들이 뒤에서 숨은 역할들을 많이 하였고<sup>80)</sup>, 기타 중소형 교회들도 이 일에 많이 합류했다. 이 일은 성도인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 시작한 연합운동으로 시작되어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들 이끌어 낼 만큼 역동적인 운동

80) 포항에서 주축이 되는 포항북부교회, 포항중앙교회, 포항장성교회, 포항남부교회 등 포항의 주요한 교회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는데 특별히 일반 성도들 중 사회 지도자들의 헌신이 두드러졌다.

으로 자리 잡았다.

요즘 한국에서는 교회가 큰 대회들 치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큰 대회도 역시 필요하다. 하나의 운동이 시작되고, 그 힘이 축적되면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된다. 이런 때에 가만있으면 그 힘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 또 운동이 진행되면 이 운동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대규모 집회들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또 대회들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넓혀 갈 수 있다. 사람들의 신앙도 도전과 그 도전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대회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룰 수 있다. 대회의 경비 마련과 감사 초청, 그리고 숙박 시설 해결, 동원 등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는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영적 발전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큰 자신감과 또 자부심을 불어넣어준 운동이었다.

### 제 3 절 포항 성시화 운동의 특징

#### 1.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확립 운동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지역 사회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은 복음화의 첫 번째 행동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잘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익 보다는 손해가 많은 것으로 비쳐진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먼저 나타낸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고, 복음의 책임을 지게 되는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성시화 운동의 첫 걸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고, 확립된 정체성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기 선포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것은 많은 비난이 따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하느냐 또는 그리스도인이니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는 등의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정치인들인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다 종교 사회에서 손해들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여야 할 첫 번째 임무이다. 공인으로서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이 누구이며, 자신의 가치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들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포항 성시화 운동은 지역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가야할 목표지점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첫발을 내디딘 사건이다. 이 말은 이들이 모두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과 함께 이 일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 운동의 시작을 놓고 볼 때, 이들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가운데서 성시화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 공포한 그들의 결단을 먼저 격려하고, 이들이 더 잘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길을 보여 주며 함께 기도하는데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 2. 성경 중심의 운동

18, 9세기들 거치면서 성경의 절대성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 계몽주의와 이신론은 인간의 이성을 진리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성경보다 높은 자리에 두었다.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역사적 예수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리들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행동의 원천이고 규범이다.  
.....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대 신학에서 이 관계들 이해하는 상당히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 파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 사이에 폭넓은 차이, 즉 특별한 해석의 과정에 의해서만 메워질 수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관점에

대해 둘 사이의 실제적인 동일성의 용납으로부터 뺀어 나온다.<sup>81)</sup>

곧 성경 이외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바르트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학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벗어나는 신학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성경의 계시 안에 있는 신비와 역동성을 중시하고 있고, 칼빈은 합리주의를 벗어나는 성령의 증거를 강조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sup>82)</sup> 성경 문자주의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경을 전혀 무시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일의 전제들 떠난 기독교의 신앙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됨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기독교인들은 합리적인 눈만으로 성경을 보아서도 안 되고, 또 아무런 의문 없이 문자만을 보아서도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신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자체로 신앙과 행위의 기본이 된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논쟁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닌 성령의 내적 확실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 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된다.

성경을 무시하고 살았던 구약 시대의 예는 요시야가 주도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운동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왔다. 성경은 스스로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 그것을 향한 첫 번째 걸음으로 성경을 들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운동은 성경 중심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루터도 “오직 성경”의 기치를 걸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였다. 종교 개혁 이전의 개혁자인 존 위클리프는 1380년대 초에 영어로 쉽고 관용적인 어구로 성경을 번역하여 종교 개혁의 기초를 닦았고, 후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서 종교 개혁을 준비하게 한 것은

81) Karl Muller and Theo Sundermeier ed., *선교학사전(Lexikon Missions-Theologischer Grundegriffe)*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편역 (서울: 다산 글방, 2003), 307.

82) Donald G. Bloesch, *복음주의 신학의 정수 1, 하나님, 권위, 구원 (God, Authority, & Salvation,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Volume 1)*, 이형기, 이수영 역 (서울: 장로교 출판사, 1994) 111.

시대들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임을 보여준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에서 배운 원리들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 속에서 성경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인 운동의 출발점이다.

성시화 운동의 시발점도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었다. 지역의 기관장 20여 명이 모여서 포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들 듣기로 한 것이다. 이 모임이 지속되면서 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성경을 공부하던 이들이 먼저 자신들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하는 열망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먼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뿐 아니라 이 기관장들이 자신의 영향력 내에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 성경의 원리들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성시화 운동에서 주어 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조직되어지는 모든 홀리 클럽들은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이 성경 연구들 통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배우게 되며, 이들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첫 번 일이 되고 있다.<sup>83)</sup> 이렇게 성경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 3. 성경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는 운동

선교학자 데이빗 보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원은 수직적인 관계이다 ..... 그것은 수평적인 관계들 산출 한다 .....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에 의해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한 사역을 “구원”을 위한 성경적인 요구사항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sup>84)</sup>

이 말은 구원의 복합성을 말하는 동시에, 복음의 양면성을 말한다. 비록 사회적인 개선이 구원은 아니지만, 사회적 개선을 행해야하는 당위성이 담겨 있음을 나타낸다.

83) 언론인 홀리 클럽은 화요일 오전 6시 30분, 기관장 홀리 클럽은 목요일 오전 6시 30분, 여성 홀리 클럽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청년 홀리 클럽은 토요일 오전 6시, 평신도 홀리 클럽은 월요일 오후 7시에 각각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고 있다.

84)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589.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말씀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우시며, 병이 든 자에게 치유를 드러내는 일을 함께 하셨다. 구속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닌 이 세상의 구원<sup>85)</sup>이라는 맥락에서 이 사실을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포항 성시화 운동은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자는 운동이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가 되고 교회는 세상이 되자는 운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정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들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운동을 벌여 나가는 일이다. 즉 정부의 정책은 공의와 정의들을 우선으로 하되, 소외되고 낙오된 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정책의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 운동으로 시작된 '포항 사랑 운동'<sup>86)</sup>이 그 대표적인 예다. 포항 시장을 통하여 이웃 사랑이 시정에 반영 되었다.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들의 문제점을 듣고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들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여 주는 일을 행하였다. 즉, 이웃 사랑에 대한 운동이 포항시의 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웃 사랑 운동은 단순하게 시혜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혜적인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씀이 사회 속으로 성육화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이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관의 변화들을 가져와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이웃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역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85) David J. Bosch. *변혁하고 있는 선교*, 590

86) 포항 시장이 한 시민으로부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포항 지역의 사람들 중 당장 살기가 어려운, 자살 직전의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각 기업들을 다니면서 기금을 마련하여 '포항 사랑 운동' 이라고 이름하고 이들에게 매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 준 운동이다.

수 있다. 이러한 사례와 함께 시의 시정 목표들 성경적 원리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자고 공무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한동대 선린병원 역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들이 마음을 합하여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기로 작정하였다. 또한 약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약 회사로부터 주어지는 리베이트(rebate)를 받지 않기로 결의함으로 몇몇 의사들은 사표를 내고 떠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손해와 진통을 겪으면서도 회사 내에서 진실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4.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 운동

이 운동은 모든 교단의 연합 운동이 되었다. 장로교 통합과 합동을 위시하여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등 모든 교단이 다 하나가 되었고, 특별히 장로교 통합 측은 교단의 노회에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가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의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시작하였다. 그래서 모든 단체의 장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서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였다.<sup>87)</sup>

다음으로, 청소년 연합 사역이 있었다. 이 운동은 현재를 위한 운동임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운동으로, 청소년들을 절대적으로 소외시킬 수 없는 당위성을 내포한다. 첫날 모임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집회로서 전야제를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포항의 모든 교회 종교등부가 연합하여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렸다. 각 집회에 각각 약 4천명과 5천 명 정도가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이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최근의 경향을 볼 때, 기독교 집회에 한 지역의 기독교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교파를 초월하여 모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별히 예배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주일 아침 예배를 모든 청소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로 보여 진다. 여기서 청소년들은 하나 됨과 함께, 삶의 목적과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 교회의 최대 약점 중의 하나가 바로 연합이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연합이 성도들로 구성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이들이 각 교회와 다른 성도들

87) 국제기아대책본부, 대학생선교회,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 극동방송, ik TV, 청소년 연합회 등 포항의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들이 참석하였다.

을 권유할 때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이 대회는 첫날 모인 사람의 수를 약 8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성인 집회만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의 모인 모든 사람들의 연인원은 약 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별히 평일 오전 집회에 매일 약 이천 오백 여 명의 성도가 모여 포항의 대형 교회들이 좁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러한 성도들의 연합은 최근의 한국 교회 집회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지도자급에 있는 성도들의 열심과 지역 교회와 지역의 모임 가운데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일을 진행한 결과로 보여 진다. 여기서 연합 운동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주어지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sup>88)</sup>

### 5. 설교 내용의 독특성

한국의 집회 특히 개신교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설교 내용의 문제이다. 설교는 개신교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모임의 성격을 결정짓기도 하며, 그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큰 역할을 감당한다. 200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 또 교회에 자주 가는 사람과 가끔 가는 사람 사이에 대통령 지지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남을 보여주는 조사가 있다.<sup>89)</sup> 이것은 설교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집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설교자들 선정하며 어떤 설교가 주어질 것인가는 그 모임의 성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부분이다.

연합 집회의 설교에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병 교치는 역사나 기복적인 설교는 전

88) "이번 대회와 같은 연합 집회가 꼭 필요한가?" 라고 하는 설문 조사에 대하여 "꼭 필요하다" 고 말한 사람이 약 32퍼센트이고, 57퍼센트가 "필요하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 고 응답한 사람은 약 7퍼센트고 "필요 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3퍼센트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90 퍼센트의 사람이 이러한 집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연합과 성경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교회 전체의 운동의 필요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89) CNN.Com. 선거결과 <http://www.cnn.com/ELECTION/2004/pages/states/US/P/00/epolls.0.html> > (2004.11.20)에 보면 교회 출석과 대통령 지지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매주 한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64퍼센트가 부시를 35퍼센트가 케리를 지지하고, 매주 한번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58퍼센트가 부시를 41퍼센트가 케리를 지지한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교회 출석하는 사람의 50퍼센트가 부시를 49퍼센트가 케리를, 일년에 몇 번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45퍼센트가 부시를 54퍼센트가 케리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아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36퍼센트가 부시를 62퍼센트가 케리를 지지하였다고 나온다. 즉 매주 설교를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들 간의 정치적 성향이 분명하게 달라 질 수 있음을 본다.

혀 나오지 않았다. 개인의 평안이나 출세의 길이 강조되지 않았고, 타종교에 대한 비판도 없었다. 초대 교회의 선교 설교에서 바울은 “상대방의 승배 대상에 대하여 동렬하고도 악의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으며 오늘날의 선교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도에서 최상의 주제는 ‘십자가’와 ‘회개’와 ‘신앙’이다.”<sup>90)</sup> 또한 바울의 설교에서는 옛 종교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sup>91)</sup>

즉,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나에 관심이 맞추어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하느냐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예수들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은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역설한 설교였고, 이런 설교에 대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표시하였다.<sup>92)</sup>

교회에서의 설교의 최고의 제목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이 이번 집회에서 그대로 선포되었던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가 총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게 하며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체험할 것인가를 선포하였다. 이것을 성도들이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설교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박 5일간의 집회에 모일 수 있었는가들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참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부담을 가지는 부분은 자신의 변화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들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진행되어야 함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90) Rolland Allen. *바울의 선교 방법론 (St. Paul the Traveller)*. 김남식 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8). 104.

91) Ibid., 100.

92) 설교의 내용이 어떠하였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약 47퍼센트가 매우 좋았다고 말하였고, 약 48퍼센트가 좋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3퍼센트가 그저 그렇다고 말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는 사람은 약 2퍼센트였다. 이러한 응답을 볼 때, 대회의 설교 내용은 95퍼센트의 청중이 공감하고 감동받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대회였음을 볼 수 있다.

&lt;표 1&gt; 대회 설교의 본문, 주제 및 내용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본문	눅 5:5-11	마 28:18	요 3:1-15	신 6:18-19
제목	만선보다 귀한 축복	포항 교회여! 일어나라	거듭남에의 초대	정직한 그리스도인
감사	홍정길	옥한흠	이동원	김동호
내용	그리스도인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소명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	포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 악한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철저히 순종하여야 한다.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들 통한 거듭남으로 시작한다. 교회 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창조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정직한 자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이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어야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 6. 성령의 역사

이 운동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 이 운동을 포항에서 시작할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주위에서 이 모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도 알지 못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 모임을 구성할 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관장들이 26명이나 모이게 되었고, 그러한 시기에 기관장 2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고, 이 도시의 변화를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과거부터 모두가 마음으로는 준비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

다. 인간이 준비하는 일에는 허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준비에는 빠진 부분이 없다.

또한 포항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포항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엡 4:3).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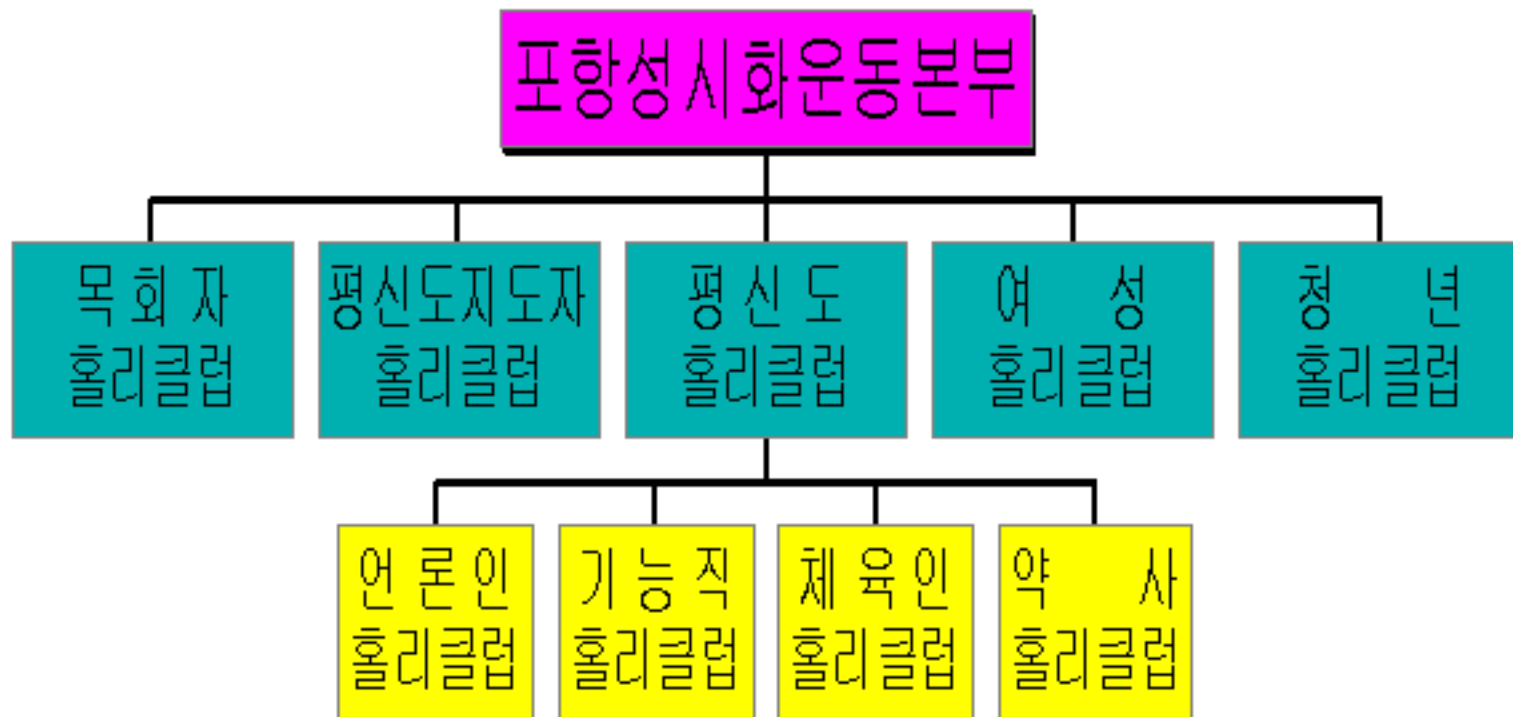
특히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는 시대적 상황을 넘어서는 일이다. 최근에 대형 집회가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고, 게다가 집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집회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러나 이 대회들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감을 다시 일깨우고, 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아침 모임에 그 많은 시간을 2천 5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한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하는 집회라야 변화가 온다. 성시화 운동에 대한 설문 조사의 내용을 보면, 75퍼센트의 사람들이 이 모임은 성령의 역사라고 응답하였다.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모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운동이라야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사람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다.

#### 7. 포항 성시화 운동의 조직

포항 성시화 운동 본부의 조직은 다른 조직들과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졌다. 이 모임은 먼저 평신도 지도자들이 시작하였고 뒤를 이어서 목회자 홀리 클럽이 만들어져 이 모임에 추진력을 더하였다.

아래에 나오는 조직의 도표들 보면 평신도지도자 홀리 클럽과 여성 홀리 클럽, 그리고 목회자 홀리 클럽, 또 평신도 홀리 클럽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자리한다. 또 각 홀리 클럽의 장들이 모여서 성시화 운동본부들 형성하고, 운동의 특성상 목회자 홀리 클럽의 장이 전체 성시화 운동본부의 장을 맡도록 되어있다.

&lt;표 2&gt; 포항성시화 운동본부 조직표



이 운동은 다른 운동과는 달리 평등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목회자들도 단지 하나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다른 홀리 클럽과 같은 위치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이 운동의 분명한 장점이 바로 이러한 동등한 위치에서의 협력 사역이다. 이를 통해서 서로의 사역의 장을 존중해 주고, 서로의 사역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으로 인해서 첫 번 시작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운동이 목회자들의 운동으로 확산되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즉 교단과 교파간의 차이가 평신도들에게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였고, 이 운동 자체가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영향력으로 시작되었고, 모든 행사가 성시화 운동본부 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진행되어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분명하였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인해서 이 운동이 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지금도 정관에 의하면 성시화 운동 본부의 모든 결정은 이 협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며, 목회자들은 이 운동을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돕는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운동은 평신도들에 의하여 보다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제 4 절 포항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 설문 조사들 통해서 본 포항 성시화 운동

### 1. 대회의 내용

이 대회는 포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4박 5일 동안 진행된 제1회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이고, 전국 22개 지역 성시화 운동 지부들과 세계 7개 도시 지부가 모여서 거룩한 삶을 살자고 다짐한 운동이었다.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연인원 약 4만 명이 모였고, 청소년 집회에는 토요일에 4천명이 모였으며, 주일에는 처음 있는 청소년 주일 오전 연합 예배로 드려서 약 5천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첫날 저녁에 각 오전 집회에는 2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저녁 집회에도 포항의 실내 체육관을 가득 메우는 역사가 일어나서 포항 역사상 최대의 기독교 집회가 되었다.

이 대회의 모든 준비와 진행은 일반 성도들 중심으로 되었으며, 모든 동원과 자금은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흑자가 났고, 첫날 집회의 헌금은 모두 지역의 불우 이웃을 돕는 비용으로 시에 기탁되었다.

### 2. 설문 조사들 통해서 드러난 집회에 대한 평가

#### 가. 조사 설계

총 설문지는 1000부들 배포하였고, 221명으로부터 수거하였다. 이 설문지들 배부하고 수거한 사람은 총 8명이며 주로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서 성시화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들 받았다.

#### 나. 조사의 목적

이번 설문 조사는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들 마치고 성시화 운동이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과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다. 이 대회는 성시화 운동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결과물로 주어진 행사이다. 대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회들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기독교 운동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시화 운동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설문 조사들 통해서 성시화 운동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성시화 운동이 구체적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이제까지 감당해 왔던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 다. 질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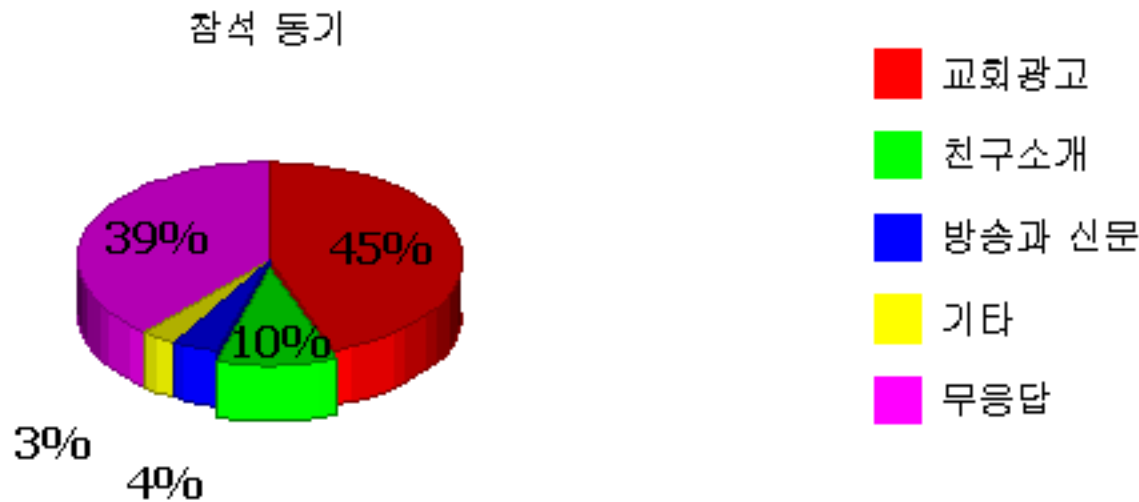
- (1) 어떻게 성시화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 (2) 대회의 진행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설교의 내용은 본인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 (4) 결단의 시간은 어떠하셨습니다?
- (5) 이번 대회가 전체적으로 어떠하셨습니다?
- (6) 이번 대회와 같은 연합 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7) 이와 같이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8) 이번 대회들 끌고 간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9) 성시화 대회들 마치면서 이 대회에 대하여 거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 라. 설문 조사 결과의 내용과 분석

##### (1) 집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주로 교회들 통하여 된 것이 약 45퍼센트 정도, 회원들을 통해서 듣고 참석한 경우가 약 10퍼센트, 그리고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약 4퍼센트, 기타가 3퍼센트 정도이다. 그리고 무응답이 39퍼센트였다. 즉 집회의 홍보는 교회의 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앞으로 모든 집회에서는 결국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열심과 광고가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번째로 홀리 클럽 사람들을 통하여 들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 역시 단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일대일 홍보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결과이기도 했다.

참석 동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운동의 홍보와 행사를 위한 사람의 모집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되므로 중요하고, 성시화 운동에서도 어떻게 운동을 알릴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대회의 진행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군더더기가 없이 잘 진행되었다가 약 15퍼센트이고,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다가 약 79퍼센트이다. 그리고 나머지 약 7퍼센트 정도가 어수선하고 준비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대회장의 한계와 매우 세밀한 부분들에서 조금의 개선은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94퍼센트의 사람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매우 잘 되어진 진행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대회의 진행은 개인의 드러남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는데 집중하여 그 외의 모든 것은 절제하여 더 나은 집회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3) 설교의 내용이 개인에게 미친 감동은 어떠하였는가?

약 45퍼센트가 매우 좋았다, 약 46퍼센트가 좋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5퍼센트가 그저 그렇다고 말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는 사람은 약 3퍼센트였다. 대회의 설

교 내용은 95퍼센트의 청중이 공감하고 감동 받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대회였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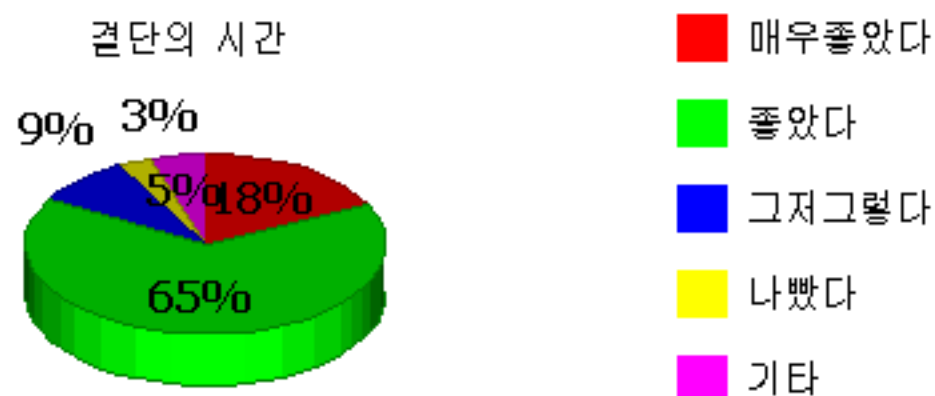
설교 내용



#### (4) 결단의 시간은 어떠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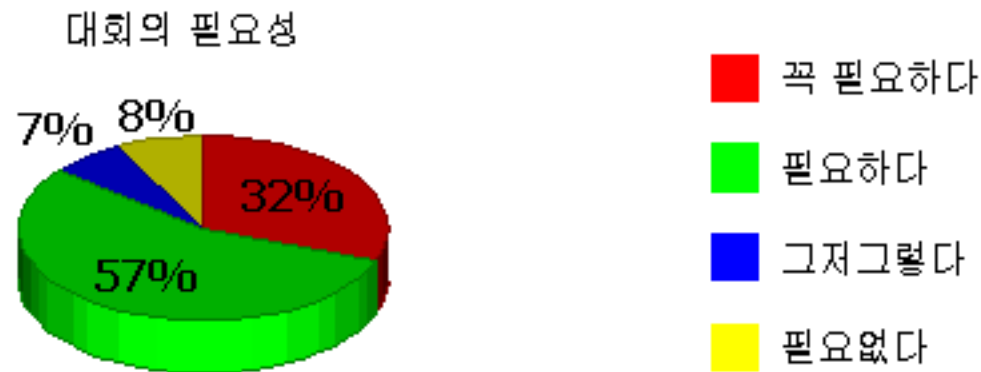
매우 좋았다가 18퍼센트, 좋았다가 약 65퍼센트, 그저 그렇다가 약 9퍼센트, 나빴다고 하는 사람이 약 3퍼센트였다.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83퍼센트로, 결단의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음을 볼 수가 있다.

결단의 시간



#### (5) 이번 대회와 같은 연합 집회가 꼭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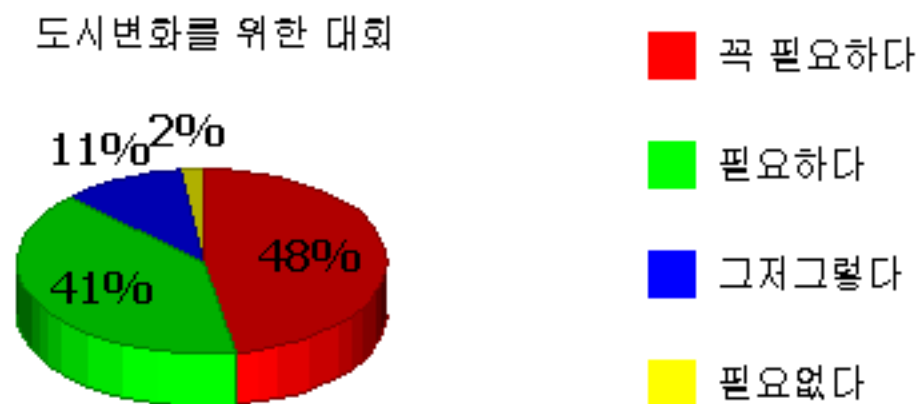
꼭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이 약 32퍼센트이고, 57퍼센트가 필요하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7퍼센트고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퍼센트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90퍼센트의 사람이 이러한 집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연합과 성경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교회 전체의 운동의 필요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6) 한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회가 필요한가?

약 48퍼센트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41퍼센트였다. 그리고 11퍼센트의 사람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고,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2퍼센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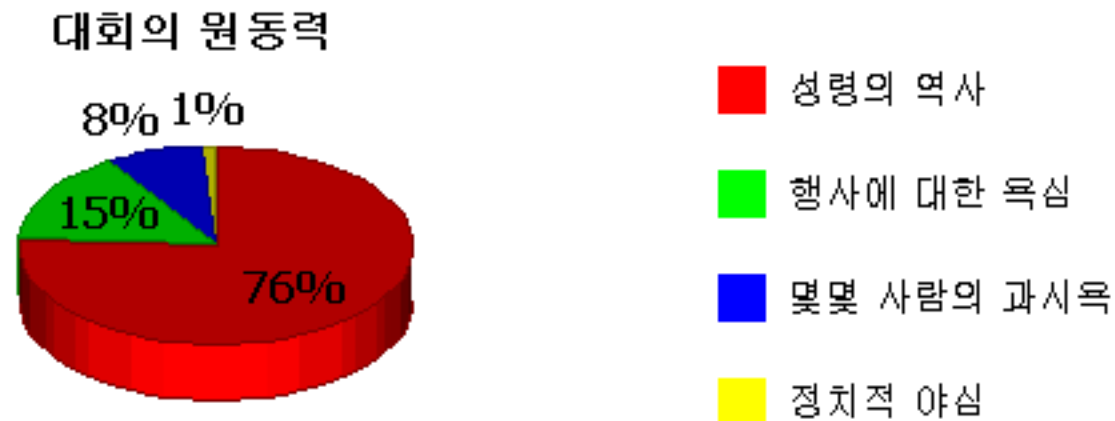
이것은 도시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일을 향하여 우리가 진력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즉 교회의 연합과 하나 됨,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이 풍부함을 c. 설교의 내용이 개인에게 미친 감동은 어떠하였는가? 보여주는 내용이다.



(7) 이 대회를 이끌어간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약 136명만이 답을 하였는데, 아마 대회의 진행을 잘 몰라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 답을 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 공부와 기도들 통해서 되어진 성령의 역사라고 응답한 사람이 약 76퍼센트, 행사들 잘 진행하려는 욕심으로 되어졌다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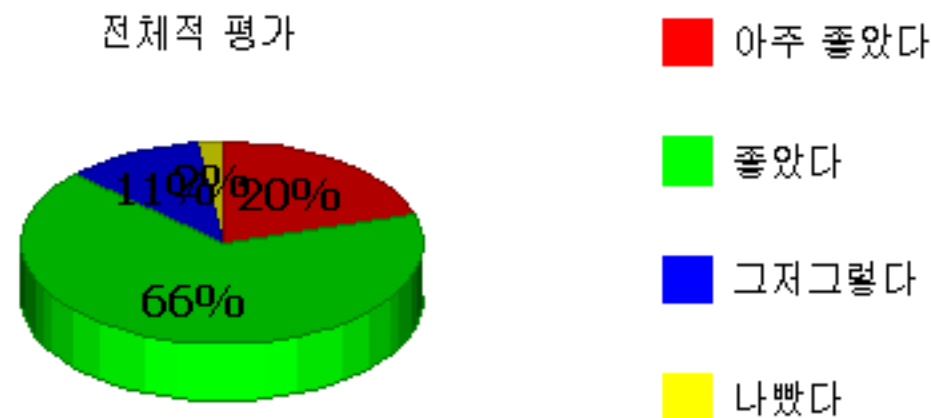
는 사람이 약 15퍼센트, 몇몇 사람들의 자기 과시욕이라고 말한 사람이 약 8퍼센트, 정치적 야심이라고 답한 사람이 1명이 있었다. 이 대회들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6퍼센트의 응답자들이 이 모임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대답하여, 이 대회의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8) 대회가 전체적으로 어떠하였다고 생각 하는가?

아주 좋았다가 약 20퍼센트이고, 좋았다가 약 66퍼센트로 전체의 86퍼센트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그저 그렇다가 약 11퍼센트, 나빴다가 약 2퍼센트였다.

대회의 전반적인 평가는 거의 90퍼센트에 이르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므로, 대회가 성도들이 보기에 매우 좋은 대회로 진행되고 마쳤음을 알 수 있다.



(9) 성시화 대회들 마치면서 거는 기대

성시화 운동을 마치면서, 이 대회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우려를 나타낸 사람들의 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대회가 과거와 같이 일회성의 대회로 끝이 나서 단순한 하나의 행사로 그칠지에 대해 염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 대회들 마치며 다음과 같이 모두가 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열망이 있었다. 첫째, 한 가지라도 생활에서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었으면 한다. 둘째, 후속 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강도 높은 훈련이 요청 된다. 넷째, 실제적인 실천이 요구 된다.

결국 대회 이전보다는 대회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대형 집회에 대해서도 그 집회 자체가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소결론

이번 설문 조사들 통해서 성시화 운동의 기본 틀은 교회의 연합 운동이며, 이 운동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하는 것이 참여를 가장 높이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대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모든 초점을 성시화에 둔 것이 좋았다. 즉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성시화 운동 중심으로 모든 순서들 진행한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설교에 있어서 기복적이거나 치유적인 성격의 설교가 아닌 매우 윤리적이고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설교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번 거룩한 삶을 위한 설교의 내용을 무척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합 집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정적이라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많다. 그러나 성도들이 연합 집회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그 내용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연합 집회들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집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형 집회도 성도들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원하고 있는 집회는 더 이상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기복적인 집회가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회를 진정히 하나님의 나라

로 만들어가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서로의 꿈을 나누는 이러한 연합집회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아울러, 많은 성도들이 이 모임을 성경 공부와 기도들 통한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성시화 운동은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영성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운동으로 받아들여 질 때에 성도들의 동참도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결과로, 성시화 운동은 교회의 연합운동이고 성도들이 모두 동참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도덕성과 윤리성,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믿음 안에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확립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와 맞게 모든 일들을 투명하게 진행할 때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진행 상황을 보면서 포항 성시화 운동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포항의 성시화 운동은 시작부터 목회자나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인 각 기관의 단체장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이 운동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성경을 더 깊이 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배운 바를 그들의 직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서 시장은 시정에, 병원장은 병원에, 검사는 죄인들의 인권에 각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통해서 포항시에서는 좀 더 인간을 중시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이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은 “정직한 포항 행복한 포항”<sup>93)</sup>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제1회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가 포항에서 개최되는 열매도 거두게 되었다. 마침내는, 이 대회들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 대회들 통해서 포항 전체가 살기 좋은 포항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룩한 도시를 향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93) 제 1 회 성시화 운동 세계대회의 중심 표어 중의 하나.

## 제 5 절 포항 성시화 운동의 개선점과 전망

성시화 운동이 진행되면서 기독교계 내에서 또는 밖에서 주어지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현재 기독교는 안팎으로 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어지는 안티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기독교가 하는 일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반대자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현재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있다.

### 1. 세상과의 대화

성시화 운동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성시화 운동이 무엇이나”고 물어왔다. 이들에게서는 성시화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였고, 이것을 단순한 기독교인들만의 문제로 축소하였다. 그래서 보편적인 운동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다.

이제까지 기독교는 세상과 대화하면서 세상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야기만 하였던 데,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기도 하였다. 무속과 유교와 불교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관습으로 인해 억눌려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세상의 변화들 경험하면서 기독교는 여전히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에 대한 불간섭을 천명하며 정권에 대하여 침묵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 친(親) 정부적이고, 정치적 행동으로 보여 졌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드러난 목회자의 자질 문제와 기독교를 표방하는 여러 이단들의 모습들 역시 한국 기독교의 아픈 모습이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들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는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면 교회 내에서 십자가도 제거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을 다 없애겠다고 까지 말하였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들 통한 구원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기독교를 전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증거하느냐는



문제임을 인식했다는 의미이다.

에디 깁스는 “마케팅적 모티브에서 선교적 모티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함을 말한다.<sup>94)</sup> 그러면서 오늘날의 세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X세대의 영적 탐험은 지적인 탐구에만 치중하지 않는다. 그들 세대가 찾고 있는 것은 기독교 변종자들을 사로잡았던 철학적 질문들, 즉 하나님의 존재, 우주의 근원, 기적의 가신성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쟁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그들은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의 말에는 관심이 없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기 원한다.<sup>95)</sup>

또한 2004년도 한미준의 갤럽 조사에 대하여 방선기 목사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교회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비록 완벽하지는 못해도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타나 소금을 역할을 해야 한다”<sup>96)</sup>고 강조했다.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들 마치고 난 이후인 2005년에 이루어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포항의 기독교 인구는 그렇게 변함이 없다. 1995년도 포항시 불교 인구는 158,294명으로 31.1퍼센트고 기독교는 75,843명으로 14.9퍼센트이며, 천주교는 21,884명으로 4.3퍼센트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불교는 159,892명으로 32.7퍼센트고 개신교는 75,843명으로 14.6퍼센트, 천주교는 36,709명으로 7.5퍼센트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시화 운동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중 개신교의 성장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sup>97)</sup> 반면에 천주교의 성장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은 성시화 운동과 같은 교회의 변화 운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한번의 이벤트성의 사건보다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

94) Eddie Gibbs, *미래 목회의 9가지 트랜드(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 성장 연구소, 2003), 45.

95) Ibid., 157.

96) 이승균, 한미준 갤럽 공동조사, “개신교 성장 가능성 아직은 있다”, <http://blog.naver.com/bec5483/140009887884>

97) 통계청 “종교활동참여인구.” Online at <http://www.kosis.nso.go.kr/cgi-bin/>

는 대목이다. 이제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즉 세상과의 의사소통에서 지나친 교리 중심의 대화가 어렵게 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기독교가 더욱더 세상으로 다가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교회 안에 갇힌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의 이슈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것을 변혁하는 변혁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의 존재 의의라는 뜻이다.

현재 기독교의 매우 많은 부분은 매우 율법적으로 변질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교리에 지나치게 갇혀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를 구분 지으면서 거룩한 교회와 타락한 세상으로 나누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몰아간 것도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한국 기독교는 교난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으로 그 교난과 역경을 이겨내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는 개인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었으나 부정적으로는 세속 사회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는 우물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바로 실제적인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하나님께서 확립하고, 새로운 창조로 우리들 이끌어간다.<sup>98)</sup>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확립하는 것으로 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문화들 새롭게 만들고, 이 새로워진 문화들 통해서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는 복음의 전달을 문화 인류학에서는 ‘이중 문화의 가교’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문화적 차이들의 간격을 통과하는 복음의 전달은 인간들 사이의 상호 인격적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 한 문화 속의 사람들과 다른 문화 속의 사람들 간의 이 ‘관계’가 이중 문화의 가교(bicultural bridge)<sup>99)</sup>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성육신은 동일화이지만, 원래 우리의 모습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일종의 이중 문화적, 혹은 두 얼굴 상태이다. 하나님이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는 구

98) N. T. Wright.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1135.

99) Paul G. Hiebert. *선교 현장의 문화 이해,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김영동, 안영진 공역.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1997), 195.

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우리가 가는 곳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sup>100)</sup>

이것은 성육신적 대화들 요청하는 것이다. 즉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유대인으로 드러나셨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 즉 음악이나 미술 등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속성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소유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 대화들 하여야 함을 말한다.

성시화 운동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세상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세상을 향해서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포항 시장이 주창하였던 ‘포항 사랑 운동’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비신자들도 기꺼이 참여하고, 또 저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운동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리라 본다.

또한 기독교의 운동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보편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참석할 수 있는 가정생활 세미나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강좌, 그리고 삶에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불우이웃 돕기와 청소 운동 등으로 다가가서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대화로서 주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 2. 성시화 운동과 타종교

성시화 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불교계에서 매우 강력하게 이 운동에 대하여 비판하고 나섰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포항 시장이 종교 편향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sup>101)</sup> 그러나, 이와 함께 불교 정치인들을 향해 좀 더 불교에 많은 관심을 포함 것을 같은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촉구하였다.<sup>102)</sup>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타

100) Paul G. Hiebert, *선교 현장의 문화 이해*, 210.

101) 인터넷 법보신문 2004년 11월 3일.

102) 인터넷 법보신문 2005-03-02/793호. “사설”, “정각회는 지을 스님의 100일 단식 사태 당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정각회의 활동이 흐지부지한 가운데 출범하는 열린 우리당 불자의원 모임은 불자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불교계의 냉소적인 시각을 정확히

종교와의 관계들 잘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타 종교와의 대화에 대한 진보적 관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앙 대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것에 의해서 풍요하게 되려는 갈망에서 꺾차 자기들 여는 것이다.
- 2) 그러한 대화는 나에게 공동체로 그리고 개인으로 자명한 진리의 증거와는 구별된다.
- 3) 대화와 증언은 서로 배제하지 오히려 이 둘은 종교 공동체의 삶의 풍요성이다.
- 4) 두 사람의 신자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증언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는 일종의 상호간의 증언이다.<sup>103)</sup>

이것은 종교간 대화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칼 라너는 “의명의 그리스도교”(anonymer Christentum)을 말하면서, 이것을 “교의에 의하면, 한 인간이 가시적인 그리스도교의 신앙고백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리고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성화케 하는 은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sup>104)</sup>고 하면서, 교회 밖에서의 구원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복음이 주어진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의인(義認)”은 은혜이고 그 은혜는 현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으로서의 은혜이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타자로부터 오는 은혜로서 모든 타종교의 사람들을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의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변선훈은 “타 종교는 기독교 신학의 ‘객체’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 신학의 ‘주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타종교와 신학’이 아니라 ‘타종교의 신학’을 형성하는 일이다.”<sup>105)</sup>라고 하여 철저하게 타 종교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말한다. “종교 간의 대화와 영성”<sup>106)</sup>은 타종교의 영성 수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

인식해 ‘바로 뛰어야 한다’는 원력으로 창립 법회를 봉행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불자위원들이 불교계 행사장에서 불자들의 손을 잡으면서 ‘저는 불자입니다. 국민과 한국불교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종교 정책을 요구한다.

103) *선교학 사전*, 92.

104) 칼 라너, “의명의 기독교로서의 타종교.” 김승철 편저, *종교 다원주의와 기독교(1)*, 112.

105) *Ibid.*, 20.

106) Arai, Toshi & Welsley Ariarajah ed. 이명진 역, *종교 간의 대화와 영성* (서울: 열린서

을 체험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타 종교들과 관계들 맺을 때에는 다음의 세 단계들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자신이 속한 종교적 전통과 모국의 문화적 전통에 확고한 뿌리들 내려야 합니다. 둘째, 타종교들의 전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이 속한 종교적 전통에서 간과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셋째, 우리들과 우리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타종교 전통의 요인들을 신중한 자세로 수용하여 우리의 전통에 융합시켜야 합니다.<sup>107)</sup>

이와 같이 그는 타 종교의 영성 수련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들에서는 주로 영성 체험 중심의 수련법을 중시하고, 하나님이나 절대자들 수련을 통해서 체험하는데서 일치점을 찾는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의 영성에 큰 도움을 주는 보편적인 방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대화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종교 다원주의의 주장은 모든 종교의 평등성을 말하고, 인간 중심으로 신을 정의하려 하고, 진리가 모든 종교 속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종교는 분명한 자신들의 자리가 있다. 이것을 통합하려 한다든지, 이 모두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될 수 있다.

종교 다원주의의 영성 체험과 종교간 운동에 있어서 분명하게 빠진 것은 예수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들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트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고전 1:22-25)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유일성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이며, 이것을 포기하고

원, 2000).

107) Arnold Bittlinger. "그리스도교와 타종교의 만남." Arai, Toshi & Welsley Ariarajah ed. 이명진 역. *종교 간의 대화와 영성*, 178.

서는 기독교 신앙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와 전혀 관계들 하지 않아서도 안 될 것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하여 타 종교와의 대화와 타문화와의 관계들 증진시켜나가야 한다.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문화들 사용하고 타 종교들 사용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갈 2:14하)라고 한 말처럼 종교의 어떤 모양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말고, 종교의 모습을 넘어서서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 해야 함을 말한다.

타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 기독교가 기독교 제국주의의 실수들 행함으로 인해서 문화와 복음을 혼동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이 입고 있는 서양 문화들 강요함으로 인해서 타종교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은 지속되고 있다. 진보진영의 이 같은 지적과 복음에서 문화의 옷을 바꿔 입히려는 노력을 받아들여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시대들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다.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문화의 장벽을 너무 높게 생각하고, 문화 자체가 복음이라고도 생각하는 것이다. M. M. 토마스는 “나는 현대 힌두교의 사유 및 생활양식으로 그리스도들 표현하는 기독교적 교회의 일반적인 선교 목표가 힌두교의 사유 및 생활양식을 변형시켜 만든 예수들 중심으로 하는 힌두교적 교회와 아무런 차이도 없음을 알았다”<sup>108)</sup>라고 했다. 이것은 자신의 문화 속에서 직접 예수들 발견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 통한다는 의미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레슬리 뉴비긴은 제국주의적인 선교 시대들 지나가면서 영국교회가 그 궤들 회개하는 두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 증거에 대한 소심함 즉 우리 문화의 가정들과 충돌하는 믿음을 가르치는데 대한 소심함을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108) M. M. Thomas. *Salvation and Humanisation*. (Madras, India: CLS, 1971). 40.

의 붕괴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신감을 말한다. 다원주의 사회가 “왜 삶을 예수로 시작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시 “왜 안 되는가?”라고 되물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는 참된 신앙의 진리와 결과들을 보여 주어야 함을 말하고, 또 종말론적 신앙을 보여주어야 함을 말한다. 즉, 진리의 실천을 통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대화하자는 것이다. 복음은 복음임을 주장하면서 그는 다원성은 환영하지만 다원주의는 배격한다고 한다.<sup>109)</sup> 이러한 관점에서 성시화 운동은 타 종교와의 대화들 중진시켜 나가면서 타 종교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소수자로서 그리고 박해받는 자로서 자라왔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다. 아직도 목소리가 지나치게 강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변하였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여유를 가지고 대해야 할 때가 되었다. 타 종교와의 관계들 풀어감에 있어서 이제는 보다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여러 종교들에서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 방법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만큼 이제는 저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서 저들 속에 있는 진리의 부분성과 진리들 향한 열정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타 종교의 언어와 타 종교의 문화로 저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들의 언어로 대화하면서 저들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한편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불교의 웃을 입은 복음, 유교의 웃을 입은 복음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과 함께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롬 1:16)라는 고백과 함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으로 증거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과 진실함 속에 들어 있으므로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실천을 보여주면서 타 종교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109) Le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허성식 역(서울:1999, IVP), 387-391.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성시화 운동의 조직 내에 타종교 내지는 사회와의 대화들 담당하는 부서들 만들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성시화 운동의 대 사회 활동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고, 함께 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갈 수 있는 융통성이 요구된다. 즉 진리의 부분에서는 타협함이 없지만 활동이나 사업에서는 겸손하게 저들에게 다가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3. 성시화 운동과 정치

캘빈은 앞에서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제네바시의 모든 체제들 기독교식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제적 운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 제네바의 기독교 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운동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포항 성시화 운동에서는 기관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이 기관장들의 모임에는 포항 시장을 비롯하여 두 명의 국회의원과 지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모임은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다. 즉 권력자들이 모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타 종교에서도 일반인들의 모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정치인들의 모임에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불교계들 비롯한 타 종교계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종교 편향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덧붙여 낙선 운동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러한 사건은 그만큼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시화 운동과 정치에 대하여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성경을 살펴보면 초대 교회의 어느 누구도 세속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투쟁을 언급하지 않는다. 노예 제도의 폐지를 말하지도 않았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에 대하여 그 불평등을 타파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정치에 대하여 완전히 침묵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성경은 매우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sup>110)</sup>

110) 레위기의 법에서 18-20장은 통치를 위한 법으로 세속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레 24-6장도 성경의 가치관을 포함한 내용을 내포하는 정치적인 법이다. 또 성경의 역사는 정치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세속 정치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정치와 인권, 자유의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이것은 국경과 종교와 인종과 성과 나이와 인간에게 조건 지어진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자유와 공의와 사랑의 문제이다. 현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치 투쟁이 아니고 제도권의 기독교인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교회 내에서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인 문제가 되어야 한다. 존 브라이트(John Bright)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복음일 뿐이고 그 복음은 개인복음과 사회복음의 역할을 다 감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밖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복음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고 한다. 즉 우리의 형제들 대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들 대접하는 것(마 25:31-46)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의 정치는 현실의 정치들 뛰어 넘어야 한다고 한다.<sup>111)</sup>

현실 정치는 적과 동지로 이분화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교회에게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한다. 개인의 구원은 물론이고 세상의 구원을 위한 정치들 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스킬렌(Skillen)은 성서의 기본적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들 선포하는 것과 국가들 훈련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한다. 예수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나 정치에서도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12)</sup>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킬렌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무들 강조한다.

오히려 성서에 따르면 정치는 왕 되신 주 앞에서 우리들 훈련하는  
일이다. 의로운 행위로 주님을 충실히 섬기는 일은 현재 우리의

---

의 역사를 보여준다(출애굽기, 사무엘서와 열왕기, 역대기 등). 누가도 역시 바울을 정치 지도자 앞에 세우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정치적 발언을 하게하고 있다(행 25).

111) John Bright,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 김인환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278.

113) James W. Skillen, *성서적 정치(Christians Organizing For Political Service)*, 채은하 역 (서울: 도서출판 무실, 1992), 39.

해야 할 정치적 의무이다. 우리의 정치의무를 비롯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질 것이다.<sup>113)</sup>

이들 통해 그리스도인도 정치의 장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세속정치의 틀을 넘어서 어떤 파당적인 결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드러나야 함을 말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 인간의 정치적 결정의 기초는 진보주의나 보수주의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대와 상황에 따르는 이데올로기와 일정 집단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 정치 이상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일반 정치 단체의 이해관계와 상황을 넘어서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고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국가를 넘어서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정치들 초월하여, 정치에 관여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힘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함을 말한다. 왜냐하면 세상 정치와 교회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 정치는 나라의 이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기독교는 이익 보다는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대접하며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일관된 방향이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시화 운동은 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다 놓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땅에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공무원 사회와 일반 기업에서 투명한 회계 정리를 하도록 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운동을 하며, 정부와 기독교계 내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을 만들고, 교육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 되도록 아이들의 인격과 세계관의 균형을 잡아 주도록

113) James W. Skillen. *성서적 정치*. 41.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로소득이 없도록, 부동산 투기나 폭리를 얻는 모든 행위들 근절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 문제, 노인 문제, 이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실시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인 북한의 북음화들 위하여, 북한의 독재와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4. 성시화 운동의 특권 계층화에 대한 우려

성시화 운동을 진행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현직 검사들과 병원장들, 대학의 학장들, 각 학교 재단의 이사장들 그리고 각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이 운동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만의 운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회의 지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권장되어야 할 내용이고, 또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성시화 운동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성시화 운동을 진행하는 사회의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 몰아가면서 자신의 인도아래 있는 자들을 이 운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운동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성시화 운동은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운동이 소수의 엘리트들로 진행되면 이 운동은 미래들 위한 대안적 운동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 운동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존중 받을 수 있는 분위기들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다는 실질 적으로 사회와 긴거리에서 직접 자신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들

드러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취할 것을 강조한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 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들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들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빌 2:5-8)

성시화 운동의 진정한 특징은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지식층들과 사회의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일선에서 직접 몸으로 봉사하는 자들에게 늘 감사함을 가지고, 그들이 사회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운동의 진정한 특징을 지켜야 할 것이다.

##### 5. 성시화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여성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던 여성들의 기록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성차별이 없어지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원인들 중의 하나로 여성의 역할을 들 수가 있다. 한국교회의 여성 성도들의 교회에 구역장으로, 여성교회 회원으로서, 또한 교회의 봉사자로,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활약은 한국 교회 성장의 초석이 되었다.

그런데 성시화 운동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국내 27개 지부와 국외 7개 지부의 임원들 중에 여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포항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분과 위원장을 제외하면 여성들의 지도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1회 포항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와 감사진을 살펴봐도 여성 감사나 간증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반하는 것

이다.

여성 리더십이 강조되고, 여성들의 참여가 보다 더 활발하게 되어질 때에 이 운동이 더 역동성을 가지고 생활 속으로 파고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자기 포기가 요구되고, 여성들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하며 여성들이 스스로없이 들어와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주어지는 신앙의 운동들에서 여성들을 수동적인 자리에 두고서는 어떤 운동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들의 능력과 신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성시화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성시화 운동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몰봄이나, 지역의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등은 남성 보다는 여성들의 손길이 훨씬 더 필요하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직장을 가지지 않은 여성 지도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성시화 운동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된다. 그리고 여성들은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일을 진행 할 수 있다. 남성들이 피상적일 수 있다면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운동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안 믿는 사람들의 필요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들을 성시화 운동의 지도부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재적인 생활을 변화시키는 주도자로서의 위치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 6.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과 성경공부 교재 개발

성시화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운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포항에서는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 이후에 포항선린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의 한 강좌로서 "성시화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성시화 아카데미의 강좌는 다음과 같다.

### 가. 1학기

- 성시화 운동이란 ?
- 도시(정의, 구조, 사람, 문화, 범죄, 산업, 교육, 의료, 청소, 윤리 등)
- 기독교 인간학, 기독교 사회학(윤리학), 생명윤리학
-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 직업관, 가정관
- 성경적 인간개발, 사탄의 정체와 실제
- 교회론, 성령의 역사와 성시화 운동
- 타종교 이해, 지방자치 행정과 성시화 운동, 도시 건강학, 성시상담학(I)

### 나. 2학기

- 성시화운동 조직 및 운영론, 기독교 문화적 접근법
- 교회일치 이론 및 실제, 성경해석학/성시화와 제자훈련
- 1:1 전도 접근법 및 도시 복음화 실제/동 단위 성시화의 실제
-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법, 세상 문화 코드 읽기, 개인시간 관리 지침
- 요한 웨슬리와 요한 칼빈의 연구 및 평양 대 부흥운동 연구
- 사례 연구/직장 선교/직능선교/장애인 선교/군인선교
- 성경적 인성개발/청소년 이해와 그 대책/가정과 성시화운동/성시상담학(II)

### 다. 세미나

- 범죄예방/시정/교육행정/세무행정 성시화 세미나

이러한 강좌는 계속하여 시대적 변화들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성시화 아카데미들 가장 먼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매우 좋은 시도로 보인다. 시작은 목회자들로 하지만 앞으로는 평신도들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또한 더 필요해질 것이다. 현재 시작 단계인 훈련 과정에서는 개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처음 교육으로는 매우 성공적으로 보인다. 물론 이 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인 평가와 이 과정이 얼마나 교회의 목회 가운데서 활용되고 있는가들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다른 한편 지나치게 많은 강좌들로 인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강좌들은 개론적인 분야이므로 충분하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은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사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보다는 필요에 의하여 강의를 맡기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적으로 서울에서 떨어져 있어서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강사들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전혀 이 강의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단순히 이 운동을 한다는 것만으로 혹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강좌들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이며, 현장을 잘 이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 성시화 아카데미가 더 심도 깊은 훈련 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각 홀리 클럽의 특성에 맞게 심도 깊은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단순한 이론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훈련이 없는 지식적인 운동은 얼마 지속하지 않는다. 분명한 목표들 가지고 배운 것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지 않는 현장이 없는 운동은 헛된 꿈이 되고 만다. 또 학과목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보여야 하고, 이들 통해서 지역에서 살아갈 지역 지도자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위해서는 헌신되고 실력 있으며 현장 경험이 있는 강사들을 선별하여야 하며, 좋은 교재들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개론 과정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시대적 요구와 근본적인 신학적 배경을 잘 조화하여 성시화 운동의 정체성을 잘 정립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홀리클럽 별로 사람의 관심 분야와 전문 분야를 설정하는 심화 과정을 잘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부와 연구가 성시화 아카데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성시화 운동 관련 성경 공부 교재도 편찬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위한 연구와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성시화 운동은 이 운동 자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많은 성경 공부와 훈련들이 교회 성장과 영혼 구원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전진하여 구원받고 훈련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육 과정은 단순히 이론과목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성시화 운동을 하는 교사라면, 학교에서 과목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그 과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분명한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에 맞는 교과과정표와 학습 교안을 작성하고 교단에서 직접 가르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행해야

할 일들이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훈련과 기도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 부분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돈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일반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다. 신앙생활도 돈의 사용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러므로 재정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물질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잘 연구하고 가르쳐서 참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시화 운동에서는 이 재정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가르침 그리고 적용의 연습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 7. 성시화 운동의 조직

현재 포항 성시화 운동의 조직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다. 이것을 시 단위로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도 성시화 운동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전체 교회 조직 중의 극히 작은 한 일부분으로 성시화 부서를 만든 곳도 있다.<sup>114)</sup> 이것은 성시화 운동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결과이다. 성시화 운동은 교회의 전체의 흐름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 그러므로 성시화운동의 조직이 교회 내에서 한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각 조직의 가장 상단부에 성시화 운동 본부가 위치하여 각 조직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위해서 교회 조직의 장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성시화 운동의 일원이 되어야 하며, 담임 목사가 이 조직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담임 목사들이 성시화 운동의 교육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들 통해서 각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고 그것을 각자의 교회에서 제대로 적용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상하관계로 되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역에 있어서 담임 목사의 역할은 신학적이며, 원리적인 부분에서 큰 방향을 잡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들에서는 일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의 정도에 맞추어서 자율성 및 전문성에 맡겨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러므로 가능한 각 클럽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전체의 유기성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조직을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114) 로스엔젤레스의 주님의영광교회에서는 각 부서들 중의 하나가 성시화운동본부인데 그 하는 일은 주로 전도하는 일이다.



성시화 운동의 조직을 교회 바깥의 조직으로만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도입하여야 하며, 이 조직을 통해서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의사 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때 성시화 운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 5 장

### 결 론

#### 제 1 절 요약

성시화 운동은 과거의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의존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과거에 있었던 교회의 선교와 이제까지 한국 사회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의 선배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저들의 약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약점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운동이다. 그리고 이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고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들 잘 분석하여서 교회가 이 사회의 진정한 바램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일로 여겨지지만 사실상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제네바에서 그리고 요한 웨슬리들 통해서 주어졌던 일들, 그리고 평양에서 춘천에서 포항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일을 되살려보면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 시대의 기준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최대 강점인 개인전도 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벗어나게 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는 운동을 벌여 나가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시화 운동을 통하여 전성도와 전교회가 전 복음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참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의미를 살려 달라고 외치는 이 시대의 요청 대

한 우리의 새로운 응답이다.

이 운동은 훈련을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간다. “모든 ‘영적’ 훈련은 몸의 행동이요, 본질상 몸의 행동이 뒤따라오기 마련이다.”<sup>115)</sup>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을 지배해 온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습관을, 몸의 사용법을 바꿈으로서 무너뜨려 정복하는 것”<sup>116)</sup>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가진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 운동을 위해 사용하고, 또 고아와 과부들 몰아보며,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과 문제가 생긴 가정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구체적인 훈련을 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복음 전도 운동은 이 운동의 핵심이다. 이게 말로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보는 자들마다 그들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이다. 복음은 바로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 다루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들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배가들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복음화의 첫 번째 목표는 51퍼센트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들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 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문제에 참여한다. “우리과 우리의 교회 앞에 놓인 도전은 신앙에 순종함으로써 진정으로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산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헌신하여 자신이 받은 모든 은사들 모든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벧전 2:4-5). 이것이 참여의 교제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참여란 진정으로 인간답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들 맺고, 그들과 만나며 함께 나누고 같이 일하면서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sup>117)</sup>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세상의 아픈 가슴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들이 바라는 나라는 정직하고, 투명하고, 공평하고, 모든 일에서 차별 받지 않는 나라

115) 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The Divine Conspiracy)* 윤종석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0), 468.

116) Ibid.

117) W.C.C. Geneva ed. *W.C.C. 역대 종합 보고서 (The Section Reports of the W.C.C. - from the First to Seventh)*, 이형기 역,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3), 444-45.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롬이 임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나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교도소와 소외된 자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구체적으로 물질로 그들을 돕고 정신적인 위안을 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참여이다.

성시화 운동은 완전한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완전을 지향하는 운동이다. 성시화 운동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자신을 훈련하고, 다스려 나가는 운동이다. 그러나 이 운동 역시도 완전한 운동이 아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자기 변화와 자기 훈련이 요구되며 겸손히 행할 것이 요구되는 운동이다.

십자가 정신은 이 운동의 기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자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 운동은 시작된다.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의 도구임을 분명하게 할 때에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 운동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예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책임의식,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겸손하게 시작하는 일이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아가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 운동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희망을 갖게 된다.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기억은 우리의 뿌리체험이다. 험난한 고난의 시기들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보는 것이다. 과거 기독교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자랑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다. 무릇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미래들 보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미래에 대한 신앙이다. 우리는 현재에 살면서 미래들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앙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신앙이다. 우리의 현재는 미래의 과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인 자기 개혁의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

성시화 운동은 성경의 절대적 기준 아래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한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실천하고 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이고 역사적이며, 그리고 현세적이며 내세적인 전 우주적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 내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으로 우리들 몰아간다.

성시화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온전히 인식하면서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모든 도성을 성시화 하면서 온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현실 속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긴급한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제언

한국 교회는 지금 성장의 정체를 맞이하면서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원칙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 부흥의 시기를 보내었던 역사적인 순간들에도 항상 위기의 순간은 있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지속하기 위하여 교회에 요구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찰스 피니는 부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1) 부흥은 그 부흥이 끝날 것이라고 교회가 믿을 때 언제나 중지된다.
- 2)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의 증지들 동의하면 그 부흥은 끝난다.
- 3)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노력할 때 부흥은 중단된다.
- 4) 부흥의 역사가 그들(그리스도인들: 펠자 주)의 도움이 없이도 계속되리라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부흥은 끝이 난다.
- 5) 교회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들의 관심사에 더 신경을 쓸 때 부흥은 끝이 난다.
- 6)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부흥을 자랑으로 생각할 때, 부흥은 끝이 난다.
- 7) 부흥은 교회가 육체적으로 지치게 되면 끝이 난다.
- 8) 교회가 추상적인 교

리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면 부흥은 끝이 난다. 9)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 들이려고 할 때에 부흥은 끝이 난다. 10)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받은 축복만큼 주님께 드리기를 거부할 때 부흥은 끝이 난다. 11)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령을 슬프게 할 때 즉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부흥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과소평가 하는 일을 말하거나 출판할 때 부흥은 끝이 난다. 12)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의 사랑의 마음을 잃을 때 부흥은 끝이 난다. 13)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깨우침을 받지 아니하면 부흥은 끝이 난다. 14)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을 이해하지 않을 때 부흥은 끝이 난다. 전도들 소홀히 할 때에 부흥은 끝이 난다. 15) 교회가 젊은이들을 사역을 위해서 교육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부흥은 끝이 난다. 16) 부흥을 비방하면 왕왕 부흥은 중지된다. 성직자에게 어려움을 주면 부흥은 중단된다. 17) 부흥이 방해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양편에 있는 비난이며 특히 부흥을 수행해 온 사람들에게 있는 비난이다.<sup>118)</sup>

사실상 한국교회는 20세기 기적의 부흥의 시기들 지나며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 처해 있다. 펴니는 이러한 위기들 타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목회자들 편에서 심각하고도 큰 회개들 하여야 한다. 2) 부흥을 반대해온 교회들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여야 한다. 3)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역시 회개하여야 한다. 4) 교회는 정치에 관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5) 잘못된 이단들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 6) 주일을 거룩하게 해야 만 한다. 7) 교회는 시시 때 때로 결정해야 되는 모든 실제적인 도덕 문제, 곧 금주와 도덕적인 개혁의 문제에 올바른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8) 기독교적 자선이라는 큰 목적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9) 부흥에 대한 회의와 질투들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을 중단하고 스스로 그 부흥을 위하여 선두에 나서야만 한다. 즉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중립을 지키거나 반대의 글을 쓰지 말고, 무장을 하고 전진하면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 주어야 한다.<sup>119)</sup>

이러한 제언들은 과거의 것이어서 오늘날 시대적 흐름과 다를 수도 있지만 매우 귀한 원리들 말해주고 있다.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원리로 돌아가라는 충

118) Charles G. Finney, *진정한 부흥 (Revival of Religion)* 홍성철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208-21.

119) Ibid., 221-28.

교이다. 우리가 이 시대들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이 끝이 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우리는 부흥의 길을 가야 함을 이 글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또 한 번의 부흥을 가져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보여준다. 이 일이 바로 이 시대에 있어서 성시화 운동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시화 운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항상 다른 사람을 보기 보다는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태도가 요구된다. 부흥은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운동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하여 운동을 진행하는 자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과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함께 모여 정립해야 한다.

세 번째로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훈련을 통해서 성시화 운동이라는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강의와 같은 형태의 훈련도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생활 가운데서 주어지는 훈련이 더 유용하다. 생활 속에서의 훈련은 더 힘이 든다. 분명한 지침과 함께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많은 운동들이 처음의 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여서 실패한 경우가 많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기독교 공동체 운동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운동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운동이다. 교리의 차이들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들 보여 줄 수 있도록 말보다는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이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 운동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를 두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운동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항상 자신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세상의 운동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운동이지만 성시화 운동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운동이다. 그리스도를 높이자면 자신이 낮아져야 한다. 이 운동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운동이 될 때에 이 운동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이 운동은 평신도 중심의 운동으로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는 이제 성직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교회 내에서의 기독교가 아닌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를 요청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이 운동은 세상 속에서의 운동이며 세상과 함께하는 운동이다. 즉 세상을 사역의 장으로 하는 운동이다. 세상은 말로만 고백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기독교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하는 일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 있어야 세상은 변할 수가 있다. 이와 함께 성직자들도 참된 회개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비워야 할 것이다. 또한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세상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원하고, 찢고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공동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 부 록

## 성경공부교재

##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 What is the Kingdom of God

## 1.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창12:2, 출6:6-7, 삼하7:4-17, 사9:6, 암9:11-15, 미4:6-8)

이스라엘 민족이 바랐던 하나님 나라는 시온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의 재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옴. 이스라엘 중심의 제국이 건설됨. 유대민족 주의. 문자적 토라 중심주의, 종교적 활동 중심. 안식일의 철저한 준수

2) 예수의 동시대인들은 야훼의 나라의 개시를 선포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가르침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는가?

사두개파 - 지금까지 살아왔던 반쯤 헌신된 삶 즉 받은 민족주의 진영에 담그고 발꿈치는 그리스 문화 속이나 로마에 부여하는 일에 담그는 식의 삶을 버리라.

바리새파 - 토라의 준수들 강화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야훼에 의한 승리와 신원을 보장받으라.

시카리파 - 무장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라.

에세네파 - 세상을 등지고 온전한 순결과 정결을 유지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을 상속 받으라.

실천: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한 책읽기(산상 수훈 읽기 등)

## 2.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막4:30-32 - 겨자씨와 같음

마22:1-14 - 천국 잔치

요3:5 - 거듭나야 볼 수 있는 나라

막4:26-29 -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나라

마18:1-5 -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 아이 같은 자

마25:1-13 - 준비하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마25:14-30 - 받은 달란트를 남겨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마25:31-46 - 주리고 목마르고, 간히고, 병들고, 간히고, 나그네 된 자들 몰보  
아 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 3.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 1) 회개해야 한다(마4:17)

회개의 부르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죄로부터 도덕적으로 몰아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광분하여 폭력을 휘둘렀던 당시 사람들에게 촉구하였던 그런 종류의 회개이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의 부르심은 예수의 예언자적 면모와 잘 부합한다. 예수가 청중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삼으라고 권유하였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포로생활이 끝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 회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종말론적 회개, 폭력적인 반역적 활동으로부터의 민족적 회개는 예수의 선포와 부르심 속에서 함께 결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합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현재적 포로생활의 진정한 깊이들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민족주의적 성향 속에서였다.

예수가 만약 단순한 종교적, 도덕적 선만을 가르쳤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가 가르쳤던 것은 정치, 문화 종교적으로 매우 극적인 가르침이었고, 온전한 변화들 추구하는 매우 급진적인 가르침이었다.(정치 - 공의와사랑, 종교 - 새로운 주(가이사)에 대한 믿음)

- 2) 모든 것을 주고 들어간다.(마13:44-45)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 어리석은 부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자 청년, 거지 나사로가 얻어먹던 집 주인
- 3)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막10:15)
- 4)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요3:5)
4.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 1) 과거에 임하였다.(막4:26-27)
  - 2) 현재 임하고 있다.(눅19:11)
  - 3) 미래 임할 것이다.(마6:9-13)
5.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 1) 현재 우리 가운데 있다(눅17:21)
  - 2) 미래에 있다(장소적의미가 아닌 시간적 의미) (막1:15)
6. 하나님 나라는 빼앗길 수 있는가?(마21:43) - 그렇다
7.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14:21, 마5:1-7:29)
-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한다.
8.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 참고 문헌

## 1. 국내서적

- 교재식. *사회 문제와 기독교 윤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0
- 기독교 신보. 1922년도 2월 15일자
- 기독교 사상 편집부 편. *한국의 정치 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0.
- 김경재. *하나님의 나라와 해방*. 기독교 사상 편집부 편, *한국의 정치 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0.
- 김세윤. *바울과 예수*, 서울: 두란노, 2001
- 김승철. *종교 다원주의와 기독교*. 서울: 도서 출판 나단, 2001.
- 김영동. *교회들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김준곤. *춘천 성시화 운동 비망록*. 미간행 소책자
- 김진두. *웨슬리와 사랑의 혁명*. 서울: 도서출판 감신, 2003.
- 동아일보. 2004년 10월 21일자 신문.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 박기호. *한국 교회 선교 운동사*. 서울: 아시아 선교 연구소, 1999.
- 박용규. *평양 대부흥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법보신문. 2005년 3월 2일자 신문(793호).
- 양낙홍. *조나단 에즈워드 생애와 사상*.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3.
- 윤철호. *예수 그리스도 (상)*.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1.
- 이원규.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6.
- 이형기.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 흐름에 나타난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_\_\_\_\_. *알기 쉽게 간추린 몰트만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전경연. *예수의 교훈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정원범. "칼빈 신학의 특징과 오늘의 의미". *신학과 문화 창간호*, 1992.

정하은. *혁명기의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조종남. *요한 웨슬리의 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4.

## 2. 번역서적

Allen, Roland. *Missionary Method St. Paul's or Ours?*. 김남식 역. *바울의 선교 방법론*. 서울: 베다니, 1993.

Anderson, Gerald H. ed. 박근원 역. *선교 신학 서설*. 서울: 기독교 서회, 1975.

Anderson, Leith.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황성철 역. *21세기들 위한 교회*. 서울: 솔로몬, 1997.

Barth, Karl. *Community, State, and Church*. 안영혁 역. *공동체, 국가와 교회*. 서울: 엠마오, 1992.

Bavinck, J.H.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 전호진 역. *선교학 개론*. 서울: 성광 문화사, 2000.

Blauw, Johannes.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전재욱, 전호진, 송용조 역. *교회의 선교적 본질*.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88.

Bloesch, Donald G. *God, Authority, & Salvation,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Volume 1*. 이형기, 이수영 역. *복음주의 신학의 정수 1, 하나님, 권위, 구원*. 서울: 장로교 출판사, 1994.

Bosh, David J. *Witness to the World - The Christian miss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전재욱 역. *세계를 향한 증거*. 서울: 두란노, 1993.

\_\_\_\_\_. *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 장훈태 공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0.

Bright, John. *The Kingdom of God*. 김인환 역. *하나님의 나라*.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Cherry, Conrad.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주도홍 역.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서울: 이레 서원, 2001.

Clevenot, *Les Chretiens et le Pouvoir*. 이오갑 역. *그리스도인과의 국가 권력*.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94.

- Coleman, Robert E. Ed. *Evangelism on the Cutting Edge*. 임태순 역. *오늘의 전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조이 선교회, 1993
- Conzelmann, Hans. *Grundriss der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 s. *신약성서 신학*. 박두환 역,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2001.
- Crossan, John Dominic. *The Historical Jesus: The Life of a Mediterranean Jewist Peasant*. 김준우 역, *역사적 예수*. 서울: 한국 기독교 연구소, 2000.
- Culman, Oscar. *The State in the New Testament*, 민종기 역,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여수론, 1999.
- Dunn, J. *Unity &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김득중, 이광훈 공역. *신약성서의 다양성과 통일성*. 서울: 나단, 1988.
- Finney, Charles G. *Revival of Religion*. 홍성철 역. *진정한 부흥*. 생명의말씀사, 1993.
- Gibbs, Eddie. *The Next Church*. 임신희 역. *미래 목회의 9가지 트렌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0.
- Goldsworthy, Graeme . *Gospel and Kingdom*, 김영철 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4
- Goppelt, M.L., *Newtestament Theology*, 박문재 역, *신약 신학1*,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Graham, W.F.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김영배 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Grant, Robert M. *Early Christianity and Society*. 김재삼 역. *초기 기독교와 사회*.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2.
- Green, Michae.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박영호 역. *초대교회 복음 전도*.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8.
- Hiebert, Paul G.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홍호 공역. *선교와 문화 인류학*. 서울: 조이 선교부, 1996.
- Hulbert, Terry C. *World Missions Today*. 윤희준 역. *오늘의 세계 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Jeremias., Joachim . *Jerusalem zur Zeit Jesu.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한국 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94.
- Ladd, G.E..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신성종 역, *신약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Ladd, George Eldon. *The Gospel of the Kingdom*. 원광연 역. *하나님 나라*.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Leith, John 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황승룡, 이용원 공역. *개혁 교회와 신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9.
- McGavran, Donald A.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공역. *교회 성장 이해*.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7.
- Moltmann, Jurge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박봉량 외 4인 공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84.
- \_\_\_\_\_. 정종훈 역. *하나님 나라의 지평 안에 있는 사회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Muller, Karl . 김영동 외 2인 역. *현대 선교 신학*. 서울: 한들, 1997.
- Newbigin, Lesslie.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허성식 역.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2000.
- Parker, T. H. L.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역. *칼빈주의 입문*.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Pratney, Winkie. *The History of Christianity Revival Movement*. 권혁재 역. *기독교 부흥 운동사*. 서울: 나침반, 1997.
- Rene, Padilla, C. *Mission Integral*. 홍인식 역. *동전적 선교*.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1.
- R. Panikkar. *The Intrareligious Dialogue*. 김승철 역. *종교 간의 대화*. 서울: 서광사, 1992.
- Ryle, J. C., *Christian Leaders of The Eighteenth Century*, 송용자 역, *8세기 영국의 영적 거성들*. 서울: 지평서원, 2005.
- Schwarz, Christian A.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외역. *자연적 교회성장*.

- 서울: NCD, 2000.
- Stott, John.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김명혁 역. *현대 기독교 선교*. 서울: 성광문화사, 1979.
- Scott, Waldron. *Bring Forth Justice A Contemporary Perspective on Mission*. 강선규 역. *사회 정의와 세계 선교를 향한 제자도*. 서울: 두란노, 1975.
- Tidball, Derek. *The Massage of the Cross*. 정옥배 역. *십자가*. 서울: IVP, 2003.
- Wagner, C. Peter. *Frontiers In Missionary Strategy*. 전호진 역. *기독교 선교전략*.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8.
- \_\_\_\_\_. *Look Out! The Pentecostals Are Coming*. 이재범 역. *성령의 능력과 교회 성장*. 서울: (주) 나눔터, 1997.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나영화 역.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8.
- W.C.C. Geneva ed. *The Section Reports of the W.C.C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이형기 역. *세계 교회협의회 역대 총회 종합 보고서*.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3.
- \_\_\_\_\_. *Confessing the One Faith*. 이형기 역. *하나의 신앙 고백: 세계 교회가 고백해야 할*.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6.
- Willard, Dallas. *The Divine Conspiracy*. 윤종석 역. *하나님의 모략*. 서울: 복있는 사람, 2003.
- William J., Larkin Jr. and Joel F. Williams, editors. 홍용표, 김성욱 공역. *성경의 선교 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1.
- Willis, Wendell ed., *The Kingdom of God in 20th-Century Interpretation*. 백규태, 안재형 역. *하나님의 나라 - 20세기 주요 해석*. 서울: 솔로몬, 2004
- Wright, N.T., *Jesus and Victory of God*, 박문재 역,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 3. 외국서적



- Greenway, Roger S., John E. Kyle, Donald A. McGavran and Timothy S. Penning.  
*Mission Now: This Generation*. Grand Rapids Mich, Bakerbook house,  
 1990.
- Ponraj, S.D. *An Introduction To Missionary Anthropology*. India: Mission  
 Educational Books, 1997.
- Thomas, M.M.. *Salvation and Humanisation*. Madras. India: CLS, 1971.
- VanGemeren, Willem A. General editor.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3*. Michigan: Zoneervan Publishing  
 House,1997.

#### 4. 기타

- 통계청.“종교활동참여인구” [온라인] <[http://www.kosis.nso.go.kr/cgi-bin/  
 sws-999.cgi?ID=DT-1WDA011&IDTYPE=3&FPUB=3](http://www.kosis.nso.go.kr/cgi-bin/sws-999.cgi?ID=DT-1WDA011&IDTYPE=3&FPUB=3)>  
<http://www.lg.co.kr/korean/utility/common/openWin.jsp>
- CNN.Com.“선거결과 2004” [온라인] ,<[http://www.cnn.com/ELECTION/2004/pages/  
 results/states/US/P/00/epolls.0.html](http://www.cnn.com/ELECTION/2004/pages/results/states/US/P/00/epolls.0.html)>

Vita of  
Eun Ho Kim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Holy City Movement in LA

Personal Data:

Birth Date: March 13, 1961  
 Marital status: Married to Ockkyung Rew with two children, Yunki and Yujin  
 Home Address: 600 E. Olive Ave. #306, Burbank, CA 91501  
 Denomination: Korea Presbyterian Church  
 Ordained: Oct 24, 2001

Education:

B. A.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1986  
 M. 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9  
 Th. M.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4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7

Personal Experience:

2004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Holy City Movement in LA  
 2002 to 2004 Chaplin of Handong University in Pohang

2000 to 2002

Assistant Pastor of Kapyung Presbyterian  
Church